

황진이

시나리오 4

2006. 4. 3.

S#1. 황진사택 별당 진이방

진이에게 남자 옷을 입혀주는 할멈.
이금이가 진이 머리모양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금이

아씨 저두 데려가주세요..한번도 불탄절 등불구경 못 했어요

할멈

아니 이년이 너까지 따라가면 안채에서 부르실 때 누가 대답을 하누

이금이

(입을 삐죽거리며 할멈에게 눈을 흘기는 이금이)...

진이

길이 익숙해지면 그때 같이 가자.

할멈

아씨 무슨 말씀이세요, 저랑 약조하셨잖아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진이

(할멈을 달래듯)내 아직 보고 싶은 게 많아서 그래요. 이제 한양으로
시집가면 다신 개성 구경 못 할 텐데 있을 때 다 보게 해줘요.

할멈

아이구 내가 미친년이지... 마님이 아시면...

진이

당연히 모르셔야죠. 자 어서 가요

남장으로 차려입은 진이 할멈 손을 끌고 후원 뒷문을 빠져 나간다.

S#2. 거리/밤

수많은 등불이 걸려있고 사람들로 가득 찬 거리를 할멈을 끌고 이리저리 뛰어 다니는 진이.
어린 시절 늑이 손에 이끌려 이리저리 구경 다니는 어린 진이 모습과 교차된다.
어린시절 왔었던 그 거리에서 지금의 모습을 확인하는 진이.
어린시절의 모습이 그때마다 교차된다.
천진한 늑이의 웃는 표정도 스쳐간다.
(사이사이 타이틀 지나간다)

메인 타이틀 - **황진이** -

cut to>

갑자기 진이 손을 꼭 잡으며 앞서가던 진이를 세우는 할멈.

할멈

아씨 거긴 안 됩니다.

홍등이 켜있는 골목 안을 멀찍이 앞에 두고는 할멈이 진이 앞을 가로 막아섰다.

진이

아니 왜요

할멈

저곳은 청교방 이요. 온갖 지저분한 인간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이에요.

아무리 역마살이 발동해도 저곳만은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반대편으로 진이 손을 끄는 할멈 어찌나 우악스럽게 끌고 가던지 진이도 힘에 못 이겨 반대편 등불 너머로 사라진다.

S#3. 산속/낮

풀숲을 급하게 헤치고 들어가면 현금이 피를 토한 채 쓰러져 있다.

다급해진 놈이 현금을 흔들해보지만 의식이 없다.

현금을 업고 뛰어 내려가는 놈이

S#4. 장덕의 집/낮

대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놈이.

놀란 하인들 놈이가 현금을 업고 있음을 확인하고는 현금의 방으로 급히 안내한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뛰쳐나온 장덕 현금을 살핀다. 놈이를 보고 놀라는 장덕.

장덕

(혼잣말로) 아니 저놈이 우째 현금을 업고 왔지

현금 받아 안는 장덕

장덕

아이구 현금아 이게 어찌 된 게냐? (현금의 핏자국을 보며) 이 피 좀

보소! 몸 생각도 해야지 도대체 어딜 그렇게 다니는가?

놈이

이분은 내 어미와도 같은 분이이니 잘 모셔라. 만약 병세가 좋아지지
않으면 네년 모가지를 분질러 버릴 테니까 알아서해!

장덕

(나가려는 놈이 소매를 붙잡고) 아니 차지어른! 현금이와 어떤 사이요.
어디서부터 업고 온 것이요?

대답은 없고 장덕을 밀어제치고는 문밖으로 사라지는 놈이.
기침을 참지 못하고 피를 토해내는 현금이.

장덕

아이구! 현금아.... 이젠 자네가 아프면 나까지 죽게 생겼네... 저놈이 어제
자네를 어미라 하는가..."

S#5. 마방집 / 밤

주인남자

또복이 이놈... 올 때가 지났잖아...?!

골방 안에 모여앉아 노름을 하면서 또복이 오기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예닐곱의 사내들.

사내1

모르지. 지금쯤 그 댁 하인 놈들한테 몰매질을 당하고 있을는지...

사내2

이거 술김에 괜한 짓을 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

사내1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보자 한 거 자네 아냐?

사내2

그야, 자네들이 절색도 그런 절색이 없다는 등, 누구라도 그 아씨 얼굴을
한번 봤다하면 혼이 나간다는 등 하도 풀무질을 해대니까...

순간, 밖에서 거친 인기척 소리 들린다.

주인남자

왔다!

주인 남자, 열린 방문을 열어 제치면 어둠 속에 보이는 한 사내의 그림자.

주인남자

아니... 괴퐁이 자네가... 이 시각에 여긴 웬 일인가?

의아한 얼굴로 밖을 쳐다보는 주인남자.

고개를 내밀고 쳐다보던 사내들, 얼른 모른 척 고개를 돌린다.

사내3

누군데?

사내1

불가사리 몰라? 이 동네에서 저 놈 잘못 건드렸단 재미없어. 암말 말아.

사내들, 모른 척 외면하며 열심히 노름판에 집중한다.

주인남자, 밖으로 나오면, 곱상한 얼굴에 괴퐁(19)이 마당에 서 있다.

괴퐁

삼춘 여기 안 왔수?

주인남자

누구, 놈이 말야? 안 왔는데?

괴퐁

삼춘한테 청교방으로 오라구 하슈.!

주인남자

청교방? 놈이가 청교방엘 드나드나?

괴퐁

사람 목숨이 걸린 일요! 그렇게만 전하슈.

괴퐁, 황급히 사라지고 주인남자 멍하니 그 모습을 쳐다본다.

S#6. 황진사택 후원 별당 / 밤

대숲으로 가려진 넷물가 이금이와 진이가 장난을 치며 물놀이를 하고 있다.

그때 할멈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할멈

이놈이 웬 놈이나? 네가 웬 놈이야?

이금이는 물속으로 몸을 깊숙이 담그고 진이는 황급히 옷을 입는다.

할멈

이놈이 감히 양반 댁 후원에 월장을 해?

할멈은 모과나무 그늘 밑에서 시커먼 그림자의 소매를 붙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다.
할멈은 نوم을 끌고 밝은 쪽으로 나왔다. 그제서야 총각의 모습이 드러난다.
둥그렇게 놀라 뜬 눈으로 마치 홀린 듯 다가오는 진이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총각.
그에겐 할멈의 호통소리도 그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 모습을 보고 웃고 마는 진이.

진이

할멈 그만 하세요

할멈

아씨 그만하라뇨! 이 밤중에 양반 댁 담을 넘었어요. 분명 도적놈이에요

할멈은 너무 소리를 지른 탓에 기침이 도져 말을 잇지 못한다.
총각 앞으로 다가가는 진이, 총각을 뻔히 쳐다보자 진이 눈을 피하며 마른 침을 꿀꺽 삼킨다.

진이

왜 그러셨어요?

총각은 진이를 보지도 못한 채 손에든 보자기와 숯덩이를 내민다.

진이

이게 뭐예요?”

또복이

여기에.... 한글자만.....

떨리는 목소리는 마치 애원하듯 들린다.
진은은 생그래 웃었다.
군말 없이 보자기를 펴놓고 숯덩이로 ‘명월’이라는 두 글자를 쓴다.

진이

됐어요? 그럼 이젠 가보세요

보자기를 건네자. 총각은 냇을 잃고 보다가 엉거주춤 보자기를 들고 뒷걸음을 치는데

진이

또 담을 넘다가 다리를 부러뜨리지 말구 이번엔 문으로 나가세요.

그때 기침 때문에 정신이 없던 할멈이 빗자루를 들고 쫓아내자.
후원 뒷문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간다.

S#7. 장덕의 방/밤

놈이와 마주앉은 장덕.

장덕

의원도 아닌 내가 어찌겠수 아무리 약을 해대도 차도가 없으니 내정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 병세가 심각한걸세... 차지 어른이 어떻게 손을 좀 써 보시게. 한양에 해소병 잘 고친다는 의원이 있다는데 어떻게 안되겠는가?”

벌떡 일어서는 놈이 급히 방을 나간다.

장덕

아니 어딜 가는가 말 좀 해 보시게 어찌 해야 하는지 차지어른...

놈이

한양에 다녀 올테니 병간호나 잘 하시오

밖에서 서성이던 괴똥이 놈이가 나오자 급히 따라간다.
걱정스레 놈이와 괴똥이의 뒷모습만 쳐다 보고 있는 장덕.

S#8. 진이방/밤

진정이 된 듯 이불을 펴며 할멈은 진이의 행동이 못마땅한 듯 입을 삐죽 내밀고는

할멈

양반 댁 아씨를 훑쳐보겠다고 담장을 넘어온 것만도 기함할 노릇인데
그런 놈한테 글씨까정 써서 줘요?
마님이 아심 어찌려고....

태연하게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진이.

진이

할멈만 암말 앓음 아무도 몰라요. 안 그러니, 이금아?

이금

(부지런히 이부자리를 펴며) 암요. 어떻게 아세요.

할멈

시끄러워, 이년아! 네깃 게 뭘 안다고 끼어들어?

진이

그냥 유두날 젊은 사람들이 장난삼아 내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 사람 어디 나쁜 짓 하게 생겼든가요?
그런 사람한테 글씨 하나 적어준 게 무어라고...

할멈

모르는 소리 말아요. 분명 그게 사단이 돼서 뭘 일이 생기고 말테니까.

진이, 인상을 살짝 찌푸리고 할멈을 쳐다보다
어느새 장난 기 가득한 표정으로 바뀌며 할멈 품을 파고든다.

진이

그러지 말고 오늘은 나랑 같이 자요, 할멈.
이제 나 시집가면 언제 한번 이래보겠어요?
옛날처럼... 예?

진이, 그러면서 할멈의 가슴을 더듬자 할멈 화들짝 놀래며 뒤로 엉덩방아를 찧는다.

할멈

아, 징그럽게 왜 이래요? 말만한 아가씨가...
아유, 간지러워요. 고만 좀 하슈, 예?

진이, 어리광을 부리며 할멈 품을 파고들고,
밝은 보름달이 비치는 별당엔 깔깔대는 웃음소리 넘친다.

cut to>

달밤에 후원 숲을 조용히 거니는 진이

진이(N)

저는 어려서부터 가까운 벗이 없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이 숲은
제게 친구처럼 말을 걸어옵니다. 세상 어디엔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또
내가 사랑해야하는 사람이 있다고...

cut to>

이부자리를 옆에 두고 조용히 일기를 쓰고 있는 진이

진이(N)

그렇게 조용히 사랑을 키워왔는데 뜻밖의 인연이 당신과 저를 하나로
엮었습니다.

S#9. 황진사댁 앞 / 밤

후원 문 앞에서 주저앉아 났을 잃고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총각(또복이)
구겨진 베보자기를 펼치자 그 위에 '明月' 두 글자가 커다랗게 써 있다.
베보자기를 소중하게 가슴에 품는 또복.

S#10. 한양 객주집/아침

아침을 먹고 있는 늬이와 괴똥이

괴똥이

최주부를 송도까지 데려가긴 어려울 것어요”

늬이

“왜?”

괴똥이

내가 잘 타일렀는데도 송도가 여기서 몇 린가.? 하면서 날 문밖으로
끌어넌디다. 그런 늬이 우리가 또 간다고 말을 들겠소?

말없이 국밥을 먹고 있는 늬이, 답답한 괴똥이

괴똥이

벌써 삼일째유... 그냥 남소문안페들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그놈을 확
던쳐서 송도까지 끌구 잡시다.

생각에 잠긴 듯 아무 말이 없는 늬이 표정이 좋지 못하다.

괴똥이

“어디 편찮으시우?”

늬이

(순가락을 놓고는) 너 어서 구라개 네거리에 가서 수박과 참외를 사서
칼을 쫓고 기다리거라.”

괴똥이

(그제야 신이난 듯) 그럼 뭘 기다릴 꺼 있수, 같이 가서 그냥 칼로 한번
휘저으면 될 일을”

늬이

“난 연못골 윤승지 댁에 잠시 들렀다 갈 테니 먼저 가서 기다려라.”

괴퐁이

“아니 그 댁엔 왜 또 가요?”

땃구도 없이 훌쩍 일어나 가버리는 놈이

괴퐁이

“탈이 났어 무슨 탈이 단단히 난 게야! 상전 정혼 댁을 왜 뺨돌면서 삼일 내내 망설이다가... 또 저리도 가겠다고? 답답해 죽겠네 정말. 아이구.....”

S#11. 윤승지댁 앞

문 앞에 선 놈이. 한참을 올려다보고는 돌아섰다가 다시 돌아보길 몇 차례. 기어이 문을 두드린다.

S#12. 황진사댁 별당 / 낮

화려한 비단 위에 한 땀 한 땀 곱게 수를 놓는 손길 위로 들리는 이금의 목소리.

이금

... 도대체 어떻게 생긴 분이실까?

... 지체 높은 대갓집 자제분이시니 성품이야 안 봐도 그만이고
역시 인물이 문젠데...

이금, 그러다 수를 놓던 혼례복을 내려놓고 불안한 얼굴로 진이를 쳐다본다.

이금

... 설마, 절름발이거나 뭐 그렇지는 않겠죠?

진이, 옆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런 이금을 보고는 빙긋이 웃는다.

진이

꼭 내가 시집가는 사람 같다?

이금

어쩐, 아씨는 궁금하지도 않으세요? 저는 요새 그 걱정에 잠도 잘 안
오는데...

진이

하고많은 사람 중에 하필 그분과 내가 부부의 연을 맺는다면 거기엔 다
이유가 있을게다. 인연이 그러한테 절름발이이면 어떻게 벼슬을 못하면
또 어떨라구...

이금

허면 아쩜 서방님이 어떤 분이셔도 상관없단 말씀이세요?

진이

글쎄... 돌아가신 아버님만 같은 분임 좋겠구나.

벼슬이나 권세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야.

책 몇 권과 지필묵 하나로도 사람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으니까.

이금

(어이가 없다는 듯) 예예?

진이, 담담한 얼굴로 붓에 먹을 묻혀 그림 옆에 시를 적는다.

진이(N)

저는 당신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제가 당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 저는 낮선 집의 문턱 앞에
서있습니다. 문턱너머에서 당신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그토록 바라는 기쁨을 당신에게 받아 안을 수 있을지... 마음이
조려집니다.

S#13. 최주부약방안 /낮

놈이가 최주부 앞에서 큰 절을 한다.

놀란 최 주부

최주부

이보게 총각 무슨 절은...

놈이

“주부 어른께 죄송한 부탁을 드리려 찾아뵈었습니다. 일전에 제 조카가
찾아뵈고 자초지정을 올렸습시다만.”

고개를 돌려 괴똥이에게 눈짓을 하자 문 밖에서 최주부에게 꾸뻑 절을 하는 괴똥이,
놀라는 최주부 이들이 어찌할까 겁이 나는데

놈이

“저희 자친 해수병 때문에 주부어른이 송도로 한번 행차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최주부께서 송도가 멀다고 거절 하셨다 길래...”

최주부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그건... 그런 게 아니라...”

놈이

주부어른이 송도에 못가시면 저희 자친께서는 필경 곧 돌아가실 게구....
자친께서 돌아가시면 주부어른이 저희한테 곧 부모를 죽인 원수가 될
모양이 올수다.... 그러면 저희 자식 된 도리로 원수를 갚지 않을 수가
없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최주부. 겁에 질려

최주부

“아니 무슨 그런 끔찍한 말을 하는가... 내가 송도로 가서 자당의 병환을
살피면 되지 않는가... 그래 언제... 언제 떠나면 되겠는가?”

놈이

“병환이 심각해 춘각을 다투는 지라 내일 새벽에 떠나시는 게....”

최주부

“그래 그러세 그러면 되는 걸 원수라니 무슨 그런....”

놈이가 피똥에게 눈짓을 하자. 들고 있던 수박을 가지고 들어온다.

최주부

(놀라며) “이건 또 무슨...”

최주부 앞에 놓여진 수박에 칼일 뱀다 내리꽂는 놈이.

최주부 뒤로 나자빠진다.

놈이

“이건 저희들 속에서 통하는 약속의 신표입니다. 일단 과일 속에 칼이
꽂히면 그 칼 값이 변합니다. 신의를 지킬 때는 상목 수 십동이 오가기도
합니다만 신의를 어길 때는 그 값으루 목숨을 맞바꾸기도 하구요... 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때 낮익은 목소리가 밖에서 들려온다.

학이

“혹시 여기 송도에서 올라온 총각들이 해수병을 고치자고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소릴 듣고 피똥이 뛰어나가자. 학이가 놈이를 찾아 뛰어 들어온다.

학이

“큰일 났네 간밤에 현금 누이가 피를 심하게 토하고 사경을 헤매고
있네..부중의 여럿 의원들이 왔다갔네만 소용없어 장덕 어머님이 무당을
불렀네. 어서 서둘러 돌아 가세나...”

놈이

(최주부를 보며) “최주부어른 지금 당장 가서야 할 것 같습니다.”

S#14. 황진사댁 안채 / 낮

외출준비를 하고 방에서 나서는 진이 모.

진이 모

차지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딜 가서 며칠째 코빼기도 안보이누...

진이 오빠

어머니, 제가 있으니 아무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진이 모

아무래도 오늘 안으론 못 돌아오지 싶다.

(진이를 보며) 어제 일도 있거니와 진이 너는 각별히 몸가짐을 삼가 거라.
혼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진이

네... 어머니.

진이 모

가자.

할멈

(이금에게 오금을 박듯이) 아씨, 잘 모셔!

할멈과 하인들, 진이 모를 따라 집을 나간다.

진이 모, 사라지자 어흠... 큰 기침을 하며 사랑채로 들어가는 진이 오빠.

공손히 절을 하며 배웅하던 진이와 이금,

모두들 사라지자 서로를 마주보며 은밀한 미소를 주고받는다.

S#15. 황진사댁 별당 / 밤

창호 문에 비치는 진이와 이금이의 그림자.

진이, 이금의 도움을 받으며 부지런히 옷을 입고 있다.

진이(N)

오라버닌?

이금(N)

오늘 같은 날 글공부를 하고 계실 리가 있겠어요? 벌써 나가셨죠.

화면, 방 안으로 바뀌면, 이금을 향해 돌아서는 진이, 남복을 하고 있다.

진이

어때?

이금

저, 아씨... 그러지 마시고... 놈이 오라버니 오심 같이 가시는 게...

진이

제깃 놈이 뭐라구 내가 그일 기다리고 있어야해?

이금

하지만 그러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 면은....

진이

기회는 오늘뿐야.

S#16. 현금의 처소

현금의 맥을 집어보고 물러앉는 최주부

최주부

“가망이 없어 너무 늦었어”

놈이

(최주부의 떡살을 잡아채며) 내가 서울 떠날 때 수박에 쏜 칼 값이 얼마라구 했지? 그 칼이 배때기에 꽂 들어가 박히기 전에 어서 구해내

최주부를 내동댕이치는 놈이.

난감한 최주부 아무 말도 못하고 가져온 꾸러미를 푼다.

S#17. 송도 거리 / 밤 (몽따쥬)

부지런히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느긋하게 걸어오는 젊은 도령.

부채로 반쯤 얼굴을 가린 그는 남복을 한 진이다.

앞서 가는 양반의 걸음걸이를 따라서 팔자걸음을 걷는 진이.

사람들 제법 많아지자 느긋하게 부채질을 하면서 은근슬쩍 주위를 구경한다.

펼럭이는 부채 사이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리 풍경.

색색가지 비단이며 패물들을 파는 시전 거리.

S#18. 청교방 거리 입구 / 밤

문득 소음이 그치자 의아한 듯 눈을 뜨는 진이.
부채 너머로 바라보면 시전거리 사라지고 한적한 청교방 거리 초입에 서 있다.
진이의 앞에 유혹하듯 길게 뻗어있는 청교방의 골목길.
양쪽으로 줄지어 늘어선 집들에는 불 밝힌 홍등들이 마치 길안내를 하듯 끝없이 걸려있다.
멍하니 서 있는 진이의 어깨를 밀치며 청교방 거리로 들어가는 사내들.
기와집들마다 꽃같이 단장한 기생들이 서로 제집으로 가자며 사내들의 옷깃을 붙잡는다.
그 모습에 자기도 모르게 당황한 진이, 황급히 발걸음을 돌리는데
그러다 자석에 끌리듯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본다.

S#19. 청교방 거리 1 / 밤

조심스레 청교방 거리를 걸으며 주위 풍경을 엿보는 진이.
저고리 사이로 속살을 드러낸 채 사내와 희롱하는 기생,
술상을 뒤엎으며 난동을 부리는 취객,
치마 속으로 들어오는 사내의 손을 탁 때리며 장죽을 피워 무는 기생...
갓가지 기방 풍경 눈앞에 펼쳐진다.
그러다 장죽 피는 기생과 눈길이 마주치자 얼굴이 화끈하며 고개를 돌리는 진이.

기생1

애, 저기 봐라. 어디서 저런 예쁜 도련님이 우리 골목으로
굴러들어온다니?

기생2

정말 곱게두 생기셨네.

기생3

아유, 너무 예뻐 오줌을 다 잘끔잘끔 싸겠구나.
해우채는 못 받아도 저런 잘난 낭군을 한번 올려놓고 흔들어봤으면...

진이, 와 하고 터지는 웃음소리에 놀라 주위를 둘러보면
이집 저집 대문가에 늘어앉은 여인들과 난봉꾼들의 눈길이 전부 자기에게 쏠려있다.
길 한가운데 꼼짝없이 멈춰선 채 얼굴 하얘지며 부들부들 떠는 진이.
휘청하며 가까스로 걸음을 옮기는데...

기생1

어마마... 애, 누구 빨리 가서 저 도령님 좀 붙들어줘라.
길바닥에 쓰러지다 그 물건이 부러지문 잘난 얼굴이 무슨 소용이라니?

깔깔대는 웃음소리 진이를 향해 쏟아지고
진이, 도망치듯 허겁지겁 발걸음을 옮긴다.

S#20. 청교방 입구

놈이의 뒤를 따라 괴똥이 따라오며 말을 건넨다.

괴똥이

아니 삼촌 이제 최주부가 왔으니 현금이는 그만두고 우릴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니우. 저기 남문밖에 패거리들이 청교방 거리까지 와서 주인행세를 하려고 든단 말이우.

놈이

그놈들이 왜?

괴똥이

요즘 남문 밖에선 변변한 장도 안서는 판에 어떻게 먹고 살겠소. 그러니 청교방이 탐이 나는 게지. 놈이 삼촌이야 주인댁이 있지만 우린 청교방 매질꾼으로 살아야하는데 그것까지 남문패거리한테 빼앗기면 요즘 같아선 진짜 굶어 죽을 판이우.

놈이

알았다 이눔아. 그만 좀 떠들어라.

S#21. 청교방 거리 2 / 밤

바쁘게 거리를 빠져나오다 뒤를 돌아보는 진이.
그러다 막 거리로 들어서던 한 무리의 남자들과 쿵- 하고 부딪힌다.
그 바람에 바닥에 떨어지는 부채.

사내1

요런 채수 없는 놈을 봤나?
대가리에 피두 안 마른 게 벌써부터 색주가 출입이야?

사내2

이놈, 너 지금 해우채 떼먹고 줄행랑치는 게지?

진이, 자신을 가로막고 천천히 조여 오는 사내들을 피해 주춤주춤 뒷걸음질친다.

사내1

요놈 봐라? 아무 말도 못하는 게 정말인가 본데?

진이 울 것 같은 얼굴로 가로막는 사내를 밀치며 빠져나가는데,
어딜 도망 가냐는 듯 그런 진이의 옷깃을 잡아채는 사내2.

사내2

이봐, 사람이 묻는데 대꾸도 없이 가버리면 쓰나?
(그러다 진이의 얼굴을 보고는) 어라? 이거 혹시 계집 아냐?

진이

놔... 놔라.

빠져나가려 안간힘을 쓰는 진이.

사내1

목소리까지, 이거 분명 계집인데?

재미있다는 듯 진이를 향해 점점 더 다가서는 사내들.
진이, 뒤로는 담벼락에 가로막혀 오도 가도 못하고 공포에 질리는데,
놈이와 괴똥이가 장덕집을 향해 가다가 이 광경을 본다.
괴똥이가 무리배의 정체를 알아보고 놈이에게 이른다.

괴똥이

저 보슈 남문 패거리요!

놈이가 나서려하자 팔을 잡는 괴똥이

괴똥이

삼촌! 저쪽은 여덟이요. 다음에 날을 잡아서....

손을 뿌리치며 놈이가 고향을 질렀다.

놈이

무슨 짓들이냐?

골목을 울리는 찌렁찌렁한 목소리에 흠칫하며 돌아보는 사내들.
저만큼 어둠 속에 산 같은 체구의 남자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다.

사내1

뭐야, 이견...?

어둠 속의 놈이를 향해 천천히 돌아서는 사내들.
놈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한두 명이 시비를 걸어온다.
괴로워하던 괴똥이 애라 모르겠다. 놈이 앞을 가로막으며 뛰쳐나가 앞서 다가오는 두 놈을 가볍게 처치하자 나머지 놈들이 일제히 달려든다.
괴똥이를 제치고 앞서나가는 놈이는 순식간에 무리 배들을 모두 때려눕힌다.
그때 다른 곳에서 뛰쳐나온 같은 패거리들이 흥기를 빼어들자
더욱 화가 난 놈이는 무리 배들이 손에 잡히는 데로 다리와 팔들을 사정없이 분질러 버린다.
한 놈씩 처박히는데 나머지 놈들은 그 광경에 경악을 하며 무서워 슬금슬금 피한다.
부러진 팔과 다리를 끌며 일어나 도망치는 무리배 중 뒤쳐진 한 놈을 잡는 놈이

놈이

(먹살을 움켜잡으며) 가서 잘 전해! 남문 밖까지 쓸어버리기 전에 이
놈이의 눈에 절대 뛰지 말라고! (멀쩡이 던져버린다)

공포에 질린 진이 그 광경을 보곤 꼼짝할 수 없다.
분명 놈이다. 그제서야 그 흉악한 인물이 놈이 임을 알아차린다.
일순 긴장했던 몸이 풀어지며 풀썩 주저앉는다.
진이는 참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음을 터트린다.
그제서야 희롱 당하던 선비를 돌아보는 놈이.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아있는 선비. 호느끼는 소리가 선비가 아니다.
괴똥이가 들고 있던 햇불을 받아들고 다가가는 놈이
휘둥그레지는 놈이.
분명 진이다. 남장을 했지만 목소리며 품세는 진이가 틀림없다.

놈이

아씨!.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놈이를 보는 진이.
안도의 눈빛이 아니라 매서운 분노의 눈빛으로 쏘아보는 진이.

놈이

진이 아씨!

그때 있는 힘을 다해 놈이의 뺨을 때리는 진이.
놈이, 놀란 얼굴로 멍하니 진이를 돌아보고
괴똥과 구경나온 기생들도 어안이 병병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쳐다본다.

S#22. 황진사택 마당 / 낮

마당을 가로지르던 진이,
마주오던 놈이와 마주친다.
진이를 보자 당황스러운 듯 눈길을 피하며 멈춰서는 놈이.
놈이를 무시하고 후원으로 들어서는 진이
진이 뒷모습을 바라보는 놈이 하인이 놈이를 부른다.

하인

차지어른! 마님이 찾으십니다.

돌아보는 놈이

cut to>

할멈이 진이를 맞으며 호들갑을 떠난다.

할멈

드디어 일이 불거졌수다.

진이

네?

할멈

그녀석이 상사병에 걸려서 앓아 자빠졌다우

진이

상사병이요? 누가?

할멈

누구긴 누구겠소 담 넘어와 아씨한테 글 받아갔던 바로 그놈이지. 그때
아씨를 뵈구 홀딱 반해서 상사병이 났다 그 말이유.

진이

나한테 반해서요? (웃음을 터트린다.)

할멈

웃음이 나우 아씨. 이 늙은 게 제구실도 못한다고 안채에서 지금까지 꾸중
듣고 나오는 길인데. 이게 다 아씨 탓이우

진이

내 탓이요?

할멈

아씨가 그 애송이를 홀려놓지 않았소? 먼발치에서만 봐도 사내놈들이
허둥지둥하는데 그걸 코앞에 놓고 방실방실 웃으면서 혼을 때렸으니 그게
모두 아씨 탓이지 않고 뭐요.

웃을 일이 아니다. 미안한 생각이 드는 진이

진이

할멈 ! 오늘 저녁에 싸릿전에 한번 다녀오세요.

할멈

(눈이 휘둥그레지며) 아니 나보구 그 못난 놈 문안을 다녀오란 말씀이우.
그러다가 그놈이 아씨 마음 쏘쏘이에 병이 더 도지기라도 하면
어찌시려우. 가만히 계셔두 일이 커질 판이니 그저 못들은 척 쥐죽은 듯
계셔!

S#23. 현금의 처소

뒷마루에 걸터앉은 늬이와 최주부 그리고 멀찍이 장덕이 한숨을 쉬며 앉아있다.
최주부마저 병색이 돈다.

늬이

“그러니 이제 전혀 가망이 없단 말씀이시우”

최주부

“사흘이나 꼬박 약을 달여 먹이고 뜸 단지를 붙이고 했지만 지금으로선
나도 어쩔 도리가...내가 보기엔 잘 하면 모래아침... 지금 갈아선 기껏
내일을 버티기 어려울 것 같네...”

장덕

(얘기를 듣다가 툭툭 털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차지어른 말리지 마시우! 내 학당골 큰무당을 부를 테니...
어이구 불쌍한넌!

S#24. 장덕집 마당

굿판이 벌어졌다.

구경꾼들로 가득 메워진 마당에서 대왕등의 큰무당의 굿이 벌어지고 있다.

차려진 상과 귀신을 쫓을 영물이 놓여있고 그 옆으로 평상위에 현금이 누워 있다.

장단에 맞춰 춤을 추던 무당은 중간 중간 소리를 하며 굿판을 달구고 있다.

현금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무당은 현금의 일생을 읊어간다.

“중으로 태어나 갓은 고생으로 어린시절이 지나가니 살을 깎아 만든 자식과 생이별로 마음까지 병들어 급기야
귀신까지 괴롭힌다.” 면서 귀신물기로 이어진다.

사정을 헤매면서도 현금의 감은 눈엔 눈물이 끈이지 않고 장덕과 논단이 들은 훌쩍거리기까지 한다.

어금니를 물고 무당의 몸짓만을 바라보던 늬이도 현금의 눈물이 안타깝다.

굿은 영물인 낚 양푼을 물고 구경꾼들 사이를 지나

골목을 한바퀴 돌고는 다시 돌아와 상위에 내려놓는다.

사이사이 마치 귀신이 빠져나가는 듯 현금은 힘들어하며 몇 번의 기침을 하더니 이내 기절한 듯 쓰러진다.

굿판이 끝났다.

S#25. 현금의 방

장덕

“현금아!!”

장덕의 짧은 부름이 곧 울음으로 바뀌고 통곡이 이어진다.

늬이를 꼭 잡고 있던 현금의 손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늬이를 향해 미소 짓던 현금의 표정이 그대로 늬이를 향해 굳어 있다.

늬이는 천천히 현금의 눈을 감겨준다.

통곡소리는 문밖에 있던 논단이 들로 이어지고 모두들 돌아선 채 슬퍼한다.

돌아서나오는 늬이를 따라오는 장덕.

장덕

“장례는 우리 청교방 관습대로 3일후에 줄무지장으로 지낼 테요”

고개만 끄덕이는 늙이 앞에 괴똥이가 나타난다.

괴똥이

“서울 윤승지 댁에서 온 손님이 삼촌을 뵙자고 남문 밖 돌집에서 기다린답니다.”

S#26. 황진사댁 앞 / 낮

황진사댁 대문 앞에 우뚝 솟아있는 효자정문.

말 탄 양반 하나 마방집 아들의 길안내를 받으며 그 앞에 다가와 멈춰 선다.

마방집 아들

여기가 바로 황진사댁입니다요.

저희 송도에선 효자정문 댁이라고도 부릅지요.

뻗뻗한 얼굴로 황진사댁 정문을 쳐다보던 양반, 말없이 말에서 내려선 고삐를 넘겨준다.

양반

곧 떠날 테니 여물을 든든히 먹이 거라.

S#27. 황진사댁 별당 / 낮

외출준비를 하고 있는 진이. 미금인 혼례복 마무리 바느질을 하고 있다.

할멈이 투덜거리며 들어온다.

할멈

가마를 들여놓은 창고 문을 못 열고 있답니다.

진이

그까짓 낡은 봉어자물쇠는 낫갯가락 하나만 있어도 여는 것을 그제 무슨 말이에요.

할멈

자물쇠를 못 열어서 그러겠수 늙이가 무서워서 그러는 게지. 늙이가 열쇠를 가졌는데 어젯밤부터 없어져 아직 안 나타났답니다.

진이

놈이는 오늘 아침 일찍 공양드리러 간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말이에요?

할멈

글쎄 요즘 놈이가 어디에 흘러 다니는지 집안일에는 통 관심이 없습니다.
청교방 출입을 한다는데 어느 년 치마폭에서 정신을 놓고 있는 건지....

이금이

놈이 오빠는 그럴 사람이 아네요!

할멈

애 이년아! 니년이 수컷들 속을 어찌 아누?

이금에게 꿀밤을 먹이고는 나가는 할멈

진이

며칠 전 손님이 다녀간 모양인데, 뉘시라든?

이금

소, 손님이요? 그, 글쎄요... ?

진이

정말 몰라?... 이상하구나.
그리고선 어머니가 저리 몸져누우셨으니 말야.

이금, 슬그머니 고개를 떨구며 바느질만 한다.
거의 완성된 혼례복을 바라보며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는 이금.

진이

그리구... 이금이 너... 왜 그렇게 멀쩡이 앉아있니?

이금

(화들짝 놀라며) 예? 저, 저는 그냥...

진이

됐어. 얘기하기 싫음 말려무나. 너까지 나를 벌써 출가외인 취급 하는
게지?

이금, 그 말에 내색은 못하고 안타까운 얼굴로 고개를 숙인다.
진이, 새침한 얼굴로 고개를 돌리는데 언뜻 창밖으로 나뭇가지 뒤에 서있는 오빠가 보인다.

진이

(의아한 듯) 저기... 오라버니 아니니?

이금
서방님이요?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두리번거리는 이금.
하지만 진이 오빠의 모습, 사라지고 보이질 않는다.
중문 밖이 시끄럽다.
할머니 밖에서 소리친다.

할머니
아씨 가마 준비 됐답니다.!

S#28. 황진사댁 안방 앞 / 낮

외출복을 차려입은 진이가 닫힌 안방 문 앞에서 들어가려 한다.
그때,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

진이 모(N)
... 들어올 것 없다.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할 수 없이 반쯤 벗던 고무신을 다시 신는 진이.

진이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무거운 얼굴로 돌아서는 진이가 보이고
어두운 방안에 등을 돌린 채 누워있는 진이 모의 모습이 보인다.

S#29. 산길 / 낮

상좌중의 안내를 받으며 산길을 걸어 암자로 향하는 진이와 할머니
그 뒤를 따르는 가마꾼들과 짐꾼들. 언 듯 보아도 거창한 공양행렬이다.
절문에 가까워 오자. 여인네들이 공양을 한보파리씩 지고, 이고,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그 사이를 가르며 진이행렬이 절 안으로 들어간다.
그 뒤로 쏟아지는 여인네들의 푸념들
“저것들은 절에 공양 와서도 양반 행세야”
“똥은 말라도 구린내가 난다네. 공양 왔다고 양반버릇 개줄까?”

S#30. 암자 / 낮

편지를 읽고는 고개를 들어 찬찬히 진이를 뜯어보는 비구니 해월.

해월

마님께서 아씨의 앞날에 대해 걱정이 많으신 듯 합니다.
지금 자리에 누우신 것도 다 그 때문 이구요.

진이

(의아한 듯) 어머니가요?

해월

짐작되는 바가 없으십니까?

걱정스런 얼굴로 고개를 가로젓는 진이.

해월

아씨는 범상치 않은 기운을 가지셨습니다.

진이의 눈앞에 점괘를 펼치곤 유심히 살피는 해월.

해월

아씨의 냉담한 기색은 병호추월의 정신을 머금었고 총명한 재질은
창해명주의 광채를 감추었으니 당대에 명성을 날리고 후세에 이름을 남길
상입니다. 모두가 아씨를 우러르고 연모할 것이나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시련이 아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아녀자라면 어림없겠지만
아씨라면... (그리곤 잠시 진이의 얼굴을 쳐다보는 해월)
... 다만 한 가지.... 유감스런 것은....

긴장된 얼굴로 해월의 다음 말을 기다리는 진이.

S#31. 절 문 앞 / 낮

가마를 타지 않고 종이 샷갓을 눌러쓴 채 천천히 절 길을 내려오는 진이와 할멈 .
뒤따르는 가마꾼들, 걱정스런 얼굴로 진이의 눈치를 살핀다.

가마꾼

아씨! 이제 그만 가마에 오르시지요?

가마꾼의 말이 들리지도 않는지 무표정한 얼굴로 앞장서 걸어가던 진이,
큰 길로 나서자 문득 걸음을 멈춘다.
저만큼 무슨 잔치라도 벌인 듯 요란하게 울리는 날라리와 피리 소리,
흥겨운 장구와 팽과리 소리가 그 뒤를 따른다. 사람들을 헤치고 다가오는 한 무리의 행렬.
소리는 잡스러운데 사람들은 묵연하고

꽃으로 장식한 상여 뒤에는 울긋불긋 아름답게 차려입은 여인들이 저마다 머리에 빨간 꽃을 꽂고 그 뒤를 쫓고 있다.

생전 처음 보는 기괴한 광경에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바라보는 진이.

할멈

줄무지장이라고.

또 어느 불쌍한 인생 하나가 괴로운 이승을 하직한 게로군.

진이

줄무지장이라니요?

할멈

색주가의 풍속입니다. 몸을 팔던 불행한 여인이 죽으면 저렇게 즐거운 음악으로 저승길을 보내준답니다. 그이들한테 이승을 하직하는 게 슬픔이 아니라 더 없이 기쁜 일이거든요.

자신의 앞을 스쳐지나가는 줄무지장 행렬로 눈길을 돌리는 진이.

머리에 붉은 꽃을 꽂은 기생들의 면면을 살펴보던 진이의 시선이 한 곳에서 멈춘다.

침통한 얼굴로 행렬을 뒤따르고 있는 놈이의 모습.

뒤늦게 진이의 시선을 느끼고 돌아보다 진이와 시선이 마주치자 흠칫 걸음을 멈추는 놈이.

당혹스런 얼굴로 진이를 쳐다보다 멀어지는 상여로 눈길을 돌린다.

놈이를 따라 상여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진이.

S#32. 황진사 댁 마당 / 밤

진이, 가마에서 내려보면 집안, 마치 빈집처럼 조용하다.

진이, 안방으로 가려는데

하인

(어쩐지 안절부절못하며)

아씨... 마님께선 벌써 자리에 드셨으니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진이, 한숨을 내쉬며 하인을 따라 후원으로 들어선다.

진이

이금이, 어디 있니?

우물쭈물하는 하인.

진이

(의아한 얼굴로 돌아보며) 어디 있냐니까?!

하인

저.... 아까 점심나절부터... 못...봤습니다요..

불길한 예감이 드는 진이.
이금이를 찾아 집안을 헤맨다.

진이
이금아!

그때 악! 외마디 비명소리가 들린다.
놀라 돌아보는 진이. 사랑채에서 난 소리다.
할멈소리가 이어진다.

할멈
아이고 이금아!

급히 사랑채로 뛰어 들어 가는 진이.
할멈이 잠겨진 사랑채 문고리를 잡고 흔들고 있다.

할멈
도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도련님! 아이고 이금아

방안에선 진이 오빠가 이금이를 때리며 짓누르고 있다.
이미 옷은 찢어지고 머리채를 휘어잡은 진이 오빠 손에 꿈쩍없이 당하고 있는 이금이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는 아랑곳없이
반항하는 이금이 얼굴에 얼굴을 비비며 발정 난 짐승처럼 눈빛이 돌아있다.
“과광” 방문이 부서지며 열린다.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 돌아보는 진이 오빠.
진이가 서있다.

S#33. 황진사댁 안방 / 밤

병색이 완전한 모습으로 이부자리에 앉은 채 진이를 바라보는 진이 모.

진이모
(체념한 듯 비웃으며) 부전자전... 그 애비에 그 아들이로고... 덕분에
이제는 더 이상 너에게 숨길 재간이 없구나...
며칠 전에 너와 정혼한 한양의 윤승지 댁에서 사람이 다녀갔느니라.
...파혼을 하겠다는 구나

갑작스러운 말에 놀라며 고개를 드는 진이

진이모
너두 알겠지만 일단 정했던 혼사를 물리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상서롭지 못한 일이기두 하고, 하지만 내가 병어리 냉가슴 앓듯 하구 있는
건 그까짓 파혼을 당한 것 때문이 아니다.
그 댁이 파혼을 하겠다고 내세운 이유 때문이다.

진이 영문을 모른 채 가만히 듣고 있을 수밖에...

진이 모

너 상두복색이란 말 들어봤니?
장례 때 화려하게 치장한 상여를 봐라 울긋불긋 눈이 부시지.
그런데, 정작 관 뚜껑을 열면 썩어서 냄새가 나는 송장이 있단다.
이 집 앞에 높이 세워놓은 효자문이 바로 그 상두복색이다. 그리고 난 그
치장을 꾸미느라 안달이 난 상두꾼이란단다.

S#34. 몽따쥬

진이모(N)

“나두 시집 올 때는 야심만만한 계집이었단다.”

- 창문을 열어놓고 글을 읽는 듯 앉아있는 젊은 황진사.
- 몸을 웅크린 채 지나가는 계집종을 쳐다보는 황진사 슬그머니 글을 치우고 일어난다.

진이모(N)

“하지만 글방에서 과거를 준비할 줄 만 알았던 남편이 세상에 둘도 없는
색마란 사실을 알면서 그 모든 꿈이 사라졌단다.”

- 빨래를 널고 있는 계집종 뒤에서 엉덩이를 톡 치는 황진사. 계집종 싫지 않은 듯 엉덩이를 흔든다.
- 야밤. 사랑채에서 황진사와 계집종 놀고 있는 그림자가 문에 비친다. 계집종위로 올라타는 황진사의 그림자.

진이모(N)

“집안의 계집종이란 계집종은 모조리 사랑채로 끌어들이는 흉악한
색마였다”

- 효자문이 세워졌다.

진이모(N)

“하지만 서방이 잘돼야 계집도 행세를 하는 세상에 과거에 급제할일이
만무한 서방한테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채물로 효자문을 사서 세울
수밖에...”

- 헛간에 묶여있는 계집종. 시뻘겋게 달궈진 인두로 등을 지지는 하인.
- 독기 오른 모습으로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젊은 진이 모.

진이모(N)

상두꾼 노릇이란 게 그런 거란다. 썩어 문드러진 시체가 보이지 않게
꾸미는,... 행여 서방소문이 안중문밖으로 세어 나갈까봐 노심초사 독하게
중년들의 입을 틀어막았단다.”

- 젊은 진이 모가 바느질을 하고 있고 옆에선 어린 현금이 돕고 있다.

진이모(N)

“내가 이집에 시집을 때 친정에서 데리고 온 교전비가 있었다. 현금이라고 부르는 아주 예쁜 애였지. 대 여섯 철부지 때부터 손때를 묻혀 키운 내 몸종 이었다”

현금을 돌아보고는 따뜻하게 웃어주는 진이 모.
열려진 창문 너머로 현금을 훑쳐보고 있는 황진사

- 사랑채에 등불을 켜고 있는 현금. 뒤에서 현금을 덮치는 황진사.
- 완강히 저항하는 현금. 그런 현금을 사정없이 때리는 황진사. 기어이 현금을 제압한다.

진이모(N)

헌데 친정나들이를 간 사이에 니 오라버니처럼 현금을 망쳐놨구나

- 구석방에 웅크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현금. 확 문을 열어젖히는 진이모.
- 현금에게 달려들어 강제로 옷을 벗겨낸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현금.
- 울음을 참지 못하는 현금. 눈물을 흘리며 그런 현금을 뒤로하고 방을 뛰쳐나가는 진이모

진이모(N)

내 독한마음으로 아무도 몰래 죽여 버릴까도 생각했었다.”

- 해월스님과 마주앉은 진이모

진이모(N)

“차마 인정에 끌려 결단치 못했는데 해월스님이 묘한 방도를 주셨단다.

- 산통으로 초죽음이 된 현금. 진이를 직접 받아든 진이모.

진이모(N)

“내가 임신을 한 것처럼 꾸미고 내가 직접 그 아이를 받았다.
그게 바로 너 였구나”

S#35. 안방

놀라는 진이.
진이의 표정을 외면한 채 얘기를 이어가는 진이모

진이모

“너두 알다시피 난 얼음장처럼 차갑구 인정이 박절한 사람이다.

S#36. 몽따쥬

- 별당 마루에서 진이를 안고 하염없이 울고 있는 현금.

진이모(N)

난 니 어미에게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택하라고 했다. 이 집에 남아서
딸까지 종을 만들던가 아니면 이 길루 집을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구. 그럼 너를 내 딸로 어디에도 손색없는 양반 댁 아씨로 키워
주겠다고...

- 후원 뒷문을 빠져나가는 현금. 돌아선 채 진이를 안고 있는 진이모
진이의 얼굴을 찬찬히 내려다보는 진이모 눈물이고여 떨어진다.

진이모(N)

어느 에미가 자기처럼 딸이 종노릇을 하길 바라겠느냐. 이집을 나갈 길을
택할 수밖에 나두 네 어미의 마음을 잘 알구 있기에 오늘까지 그 약속을
충실히 지키려고 무진 애를 썼단다.”.

-글방에서 마치 군자처럼 글을 쓰고 있는 황진사. ‘락락장송 독야청청(落落長松 獨也靑靑)’ 글을 쓰다말고 걸은
질을 하며 멀리 계집종들의 몸놀림을 훑쳐보는 황진사. 슬쩍 글을 물리고 일어나다가 뒷목을 움켜쥐고는 마루
바닥에 쓰러지는 황진사 마당 아래로 굴러 떨어진다.

S#37. 황진사댁 안방

아무런 표정의 변화도 없이 뻥히 진이 모를 바라보는 진이.

진이 모

근테 그걸... 이 집에 사는 너조차도 모르는 걸.. 그만 그 댁에서 알았구나.
그렇게 입막음을 했건만... 도대체 이 일을 어찌 그 집에서 알았는지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진이의 시선은 이미 진이모를 빗겨 허공을 향해있다.

하지만 무표정한 얼굴은 허탈하거나 낙담하기보다는 너무도 차갑다.

진이모

... 애! 무어라 말을 좀 해보렴.

진이의 눈은 붉게 충혈 되었는데 눈물이 흐르기보다는 옅은 비소가 흘러나온다.

진이모

아니 왜 웃니? 응 왜 웃어? 차라리 울어라. 이럴 땐 소리쳐 우는 거야!

차가운 비소만을 흘리고 있는 진이.

< #38 #38 사이 진이의 심리적 갈등을 잘 드러냄
이제 황진이 단념한 것이 아님을 알음

S#38. 황진사택 별당 / 밤

방문을 닫고 돌아서는 진이
방안에 앉아 등불만 바라보고 있는 진이 천천히 방안을 살핀다.

진이(N)

분명 모든 것이 달라졌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손에 익고 눈에 익은
모든 것들이 이 한순간에 한없이 먼 것이 되어버렸다. 그러니 이제부터 난
누구란 말이나?”

걸려있는 황진사의 글씨를 뚫어져라 노려보는 진이.

진이(N)

세상에 위인이나 성현들도 꾸며지고 만들어진 것이란 말인가. 선행과
덕행들이 모두 아버지와 같은 위선과 거짓에 불과하단 말인가?”

죽자를 노려보는 진이의 눈에 화로 안에 죽자를 드리우는 진이.
죽자, 화르르 불이 붙으며 검게 타들어간다.

진이(N)

꿈꿔 왔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 양반 댁 별당아씨 황진이는 이제 영원히
사라졌다.

그 위로 진이가 쓰던 일기가 던져진다.

진이(N)

18년 전 나를 치마폭에 싸안은 내 어미가 이방에서 운명을 결정했듯이....
황진이를 버리고 새 운명을 찾아야 한다.”

차갑게 미소 띤 얼굴로 하얀 재로 변하는 죽자와 일기를 끝까지 지켜보는 진이.
이금이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금이

“아씨.”

돌아보는 진이. 늪이가 서있다.

S#39. 언덕 위 / 낮

성큼성큼 언덕길을 오르는 늪이.
그러다 이따금 걸음을 멈추곤 긴장된 얼굴로 힐끔 힐끔 뒤를 돌아본다.
말없이 그런 늪이의 뒤를 따라 언덕을 올라오는 진이.
언덕 위에 기다리고 섰던 늪이, 마침내 진이의 모습이 나타나면
조용히 심호흡을 하고 말한다.

눔이

바루 여깁니다, 아씨.

진이

(조용히 주위를 둘러보다) 저기는...?

눔이

예. 바루 아씨가 계시는 별당 후원입쥬.

아마... 이곳에서 먼빛으로나마 아씨를 뵈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ins.

언덕 위 냇 가간 표정으로 앉아서는 진이의 후원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현금.

눔이(N)

(작심한 듯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곳에 우연히 올랐다가 그 분을 처음 뵈었는데 첫눈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 후로도 혹시나 하고 와보면 이곳에 계셨습니다. 그래 수소문을 해봤더니 현금이라고 얼마 전 외지에서 들어온 기생인데 아마 송도에 올 때부터 병세가 심상찮았던 모양입니다.

ins.

병색이 완전한 얼굴로 기침을 해가며 자리를 지키던 현금,
진이가 천천히 후원을 거닐며 모습을 나타내자 반가움에 어쩔 줄 모르며 몸을 일으킨다.
입을 틀어막은 채 아련히 보이는 진이의 모습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삼키는 현금.
멀리서 그런 현금을 심상찮은 얼굴로 쳐다보는눔이의 모습이 보인다.

눔이

그래, 사연은 모르지만 이상하게 신경이 쓰여서
그간 서울루 어디루 용하다는 의원을 수소문해 애써봤습시다만...
죄송합니다, 아씨.

ins. 진이가 보았던 줄무지장 행렬의 화려한 모습이 스쳐간다.

진이

(간신히) 그럼.. 그때.. 그... 줄무지장이... 바로 내 어머니의....

눔이

..예... 맞습니다. 아씨...

진이의 눈에 눈물이 흐른다.
눈물 흘리며 별당을 내려다보는 현금의 모습과
그곳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진이의 모습이 겹쳐진다.

진이

제어미의 마지막 길을 멀리서 구경만 하다니....

놈이

... 아씨,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일찍, 그분이 누군지 알아보았어도...

진이

고맙다.... 놈이! 고마워.

그 말을 하는 놈이 어쩐지 시선을 피하며 말꼬리를 흐린다.
쓸쓸한 얼굴로 그런 놈이를 쳐다보는 진이.

S#40. 진이방

방안은 모두 정리되어있다.
책들은 가지런히 보자기에 쌓여있고 마치 이삿짐을 싸듯이 물건들이 차곡차곡 싸여있다.
거울에 비친 진이 얼굴

진이(N)

“이제 허물을 벗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 양반의 위선을 벗고 내속에
흐르는 비천한 피를 당연히 받아드려야 한다.”

소복을 차려입고 방안을 나서는 진이
놈이가 마련한 가마에 올라타는 진이

S#41. 현금의 묘소

소복을 입고 현금의 묘 앞에서 큰절을 한다.
놈이, 장승처럼 서서는 긴장된 얼굴로 현금의 묘에 절을 하는 진이를 지켜본다.
아직도 붉은 흙이 그대로 드러난 쓸쓸한 봉분을 안타까운 눈길로 쳐다보는 진이.

진이(N)

“언젠가는 나도 이곳에... 비석 없는 초라한 무덤 속에 누우리라.”

무덤을 등지고 돌아선 진이 내려다보이는 풍경을 보며

진이(N)

“하지만 내 어미처럼 줄무지장의 잡스러운 음악소리는 듣지 않으리라.
내가 죽을 때는 적어도 내 나이만큼의 불상이 내 손에서 하잘것없는
흙덩이로 나뭇굴어야 한다. 위선과 거짓의 성인군자들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이 비천한 핏줄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진이

앞장서라.

눔이, 그 말에 고개를 들어보면,

진이

어머니가 계셨다는 그 곳으로 가야겠다.

눔이, 영문을 모르고 멍하니 진이를 쳐다보면 진이 어느새 저만큼 언덕을 내려간다.

S#42. 청교방 장덕집 / 밤

이미 집집마다 흥등을 내걸고 불야성을 이룬 청교방 거리엔 기생집을 기웃대는 난봉꾼들, 손님을 호객하는 기생, 여릿군들로 흥청거린다.

여릿군1

나으리, 제가 모셔다 올릴 갑쇼? 천하일색에 아직 이슬이 다 마르지 않은
숯것인텝쇼. 짧은 밤이문 상목이 한 끝, 긴 밤이문 네 끝이올시다.

여릿군2

자, 매화, 도화, 연화, 계화.. 없는 꽃이 없소이다. 나으리, 어느 꽃을
ঝ으실 갑쇼?

눔이

비켰거라!

눔이, 골목을 오가는 호객꾼이며 난봉꾼들을 제치며 앞장서고
그 뒤로 진이를 태운 가마가 뒤따른다.

눔이가 밀치자 호객꾼들, 뭐야 하는 표정으로 돌아보다눔이를 알아보곤 슬금슬금 물러선다.
가마의 창틈으로 언뜻 보이는 무표정한 진이의 얼굴.

S#43. 장덕집 / 밤

눔이가 장덕집 문턱을 넘어서자 버선발 차림으로 달려와 반기는 기생들.

기생

어머, 황진사댁 차지 어른이 웬일이래요?
현금언니 가신 후론 통 발길을 안 하시더니...

눔이, 반기며 달려드는 기생들엔 눈길조차 안주고 가마 앞에 공손히 멈춰 선다.
이윽고 가마 문이 열리며 고개를 숙인 채 그 안에서 나오는 진이.
방마다 들어앉은 난봉꾼들이 뭔가 하며 다들 이 모습을 쳐다보고
장덕이 커다란 몸을 실룩이며눔이를 맞이하려 나선다.

장덕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방금 응지란 년하구 차지 어른 이야기를 하던 중이래요.

눔이는 장덕 앞으로 바짝 다가가 장덕의 너스레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귀에다 대고 몇 마디를 던진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더없이 공손한 모습으로 허리를 굽혀 주인아씨가 다가서기를 기다린다.
그러자 장덕, 눈이 휘둥그레지며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한다.

장덕

아이구... 원네가 그만 미련하구 눈이 어두워서 진사 댁 아씨를 미처 몰라
뵈었습니다. 원네... 아씨께 처음 뵈옵는 인사 여쭙니다...

장덕, 그리곤 그대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절을 하려는데
진이, 당황하며 그런 장덕의 팔을 붙잡는다.

진이

아서 세요. 이러시면 제가 몸 둘 바를 모릅니다...

장덕, 계산이 서지 않은 표정으로 엉거주춤 일어서고
생전 처음 보는 회한한 구경거리에 술잔을 잡은 손 그대로 멀거니 구경하는 사람들.

진이

저는 오늘... 양반 댁 아씨로 여러분들을 찾아 뵈 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한 비천한 여인의 딸로
여러분들을 찾아뵈러 왔습니다. 저 대신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주셨구
마지막 길을 바래워 주신 여러분들께... 절을 올리고 싶어서요.

그리곤 천천히 손을 들어 그 자리에 꿇어앉으며 큰 절을 하는 진이.
눔이, 그런 진이의 모습을 감동한 듯 지켜보고
사람들,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쥐죽은 듯 진이를 바라본다.

S#44. 황진사댁 앞 / 낮

사람 하나 얼씬 하지 않는 황진사댁 앞 골목길.

눔이 솟은 효자문,
그 모습 위로 사람들의 목소리 들린다.

사내1(N)

들었나? 또복이 그 청년이 그예 저승길로 갔다누만.

사내2(N)

그 잘난 양반 댁 아씨 뺨에 딸씨?

여자1(N)

제대루 된 양반 씨앗이문 누가 뭐래?
종년 딸 주제에

사내3(N)

상여 나가는 날, 어디 한번 보자구. 그 위세 높은 효자정문 맥 양반님들,
황소가죽 같은 낫짝으로 무슨 호령을 해대는지...

S#45. 황진사댁 별당 / 저녁

맷돌 위에 진이의 신발 가지런히 놓여있고 방문 굳게 닫혀있다.
할멈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온다.

할멈

저... 이럴 땐 아씨께 번거롭게 굴지 말아야한다는 걸 알면서두... 할 수
없수다. 놈이가 꼭 무슨 말썽을 낼 거 같아서... 도통 내말은 듣질
않으니...

진이

“무슨 일이에요?”

할멈

내일 아침 싸전거리 총각의 상행이 뒤 골루 지나가는 걸 구경하겠다고
벌써부터 골목 앞까지 자리잡이라는 구려. 그 때문에 놈이가 성이 독같이
올랐어요. 당장 청교방 매질군 들을 끌어다가 구경꾼들 다리몽둥이를
모조리 분질러 내쫓겠다는구먼요.
때려서 쫓아버리면 당장의 창피는 피하겠지만 뒷말이 사나워 질 텐데...

진이

지금 놈이를 불러 오세요

놈이가 별당 채에 들어와 허리를 굽혀 배알을 한다.

진이

난 싸전거리 상행 때문에 집 근처에서 말썽이나 시끄러운 소동이
일어나는 걸 바라지 않는다.

그 말에 고개를 들어 진이를 보는 놈이

진이

그러니 절대루 골목 안에 모여 있는 구경꾼들을 건드리지 마라

놈이

아씨....

진이

알았니?

진의의 단호한 모습에 마지못해 고개를 숙이는 놈이

놈이

네

굳은 얼굴로 돌아서 나가는 놈이.

S#46. 진이 방안

담장 밖으로 구경꾼들의 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온다.

진은은 어금니를 다져 문다. 자개함을 열고 깊숙이 간수해 두었던 혼수를 꺼낸다.

이금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온다.

문이 열리고

이금이

“아씨 상행이 옵니다요.

진이 손에 들려있는 혼수를 보고 놀라는 이금.

이금이

“아씨 그 혼수를 어디다 쓰시려고 꺼내십니까?”

S#47. 황진사택 앞 / 낮

사람들, 골목 안이 미어터지도록 여기저기 자리 잡고 앉아서 구경하고 앉아있고

저만큼 구슬픈 호곡 소리와 함께 골목으로 들어서는 상여행렬이 보인다.

상여행렬 마침내 황진사택 대문 앞에 당도하자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시작한다.

처량하게 골목을 울리는 상두꾼들의 노래 소리.

상두꾼들

산천초목 다 이별하고 / 황천 먼 길을 떠나가네

(워 너머차 너호)

황진사택 고명파님 / 어 잘났다 한번 보고

(워 너머차 너호)

외기러기 짝사랑에 / 외론 혼이 되었구나

(워 너머차 너호)

S#48. 문 안

몽둥이를 든 놈이가 십여 명의 매질꾼들과 문 앞에 서있다.
상여소리에 안절부절 못하는 놈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다.
당장이라도 튀어나가고 싶지만 참고 있다.

상두꾼들

애슬프다 이내몸은 한번가면 못 오리라
(워 너머차 너호)
황진사댁 여기로다 그대로는 못가겠네
(워 너머차 너호)
상여가 자리에 선다.

진이가 나타나자 매질꾼들이 물러선다.
놈이와 마주선 진이.

진이

“문을 열어라”

놈이

“아씨 어딜 가시려고 이러십니까?”

진이

“모두들 날 보기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야.”

뒤따라온 이금이 진이 앞을 가로막으며

이금이

“아씨 무슨 창피를 당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진이

“내가 나서지 않으면 상여도 더 이상 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여 줘야지.

외로운 혼령이 가는 길을 구경꾼들이 막아서야 되겠느냐! 비켜라”

진이의 단호한 모습에 모두들 얼어붙는다.

놈이

“아씨”

놈이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물러선다.
커다란 대문이 열린다.
혼자 문밖으로 나선다.
시끄러운 상여소리가 일순 조용해진다.

사람들의 날카로운 눈길이 창끝처럼 날아와 박힌다.
진이는 천천히 상여 앞으로 간다.
상여꾼들도 어쩔 줄 몰라 상여를 내려놓는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진이의 작은 움직임에 침을 삼키는 구경꾼들
관위에 진이가 써준 '명월'이란 글씨가 덩그러니 있다.

ins>

그 글을 들고 났 나간 표정으로 진이를 보고 있던 또복이의 얼굴이 스쳐간다.

진이는 손에 들고 나온 꽃무늬의 붉은 슬란 치마를 활짝 펴서 관곽을 덮었다.
놀라는 사람들의 시선

진이

유명의 길이 달라... 지금은 당신의 사랑에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저승에서 다시 만난다면... 이승에서 보답 못한 사랑... 그땐 꼭..
ज्ञ아드리리다. 그 약속에 대한 표적으로 혼례 옷을 당신의 영전에
바치오니 이제 그만... 이곳을 떠나... 편안한 곳으로 가세요.

진이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진이는 상여 앞에서 물러나 후원 안으로 사라진다.
놈이의 손에서 툭!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지는 몽둥이.
상여위에 덩그러니 있는 진이의 슬란 치마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놈이.
참을 수 없는 놈이 그길로 후원 뒷산으로 단숨에 뛰어 오른다.

S#49. 진이의 방

할멈과 마주앉은 진이

진이

“할멈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맥의 애기씨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내가 가고자하는 길은 험하고 무서운 길입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정한 길이니 후회할일이 없겠지만 할멈은 깊이 생각해
보세요 떠나시던가 내 곁에 남으시던가.”

할멈

“계집이란 아파서 열 닷 냥 피가 나서 스무 냥, 죽어서 백 냥이란 말이
있수다. 그러니 아씨는 아직은 어린애죠. 암 철부지 어린애구 딸구요
그러니까 이 늙은이 귀신 값을 알 리가 있소?
하루비둘기가 재를 못 넘구 늙은 말이 길을 안다우.
그래, 이 늙은 귀신의 길잡이 없이 아씨 혼자서 그 길을 어떻게 가겠소?”

할멈의 목소리가 떨린다.
진이는 할멈의 가슴속에 얼굴을 파묻는다.
할멈의 거친 손이 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할멈의 눈물이 진이의 뺨 위로 떨어진다.
그들 뒤에 이금이 도 조용히 흐느낀다.

S#50. 뒷산 바위 위

현금이 내려다보던 그 바위위에 놈이가 섰다.
후원이 내려다보이고 진이가 후원 정자 밑에 앉아있다.
놈이는 분노와 슬픔에 일그러진 얼굴로 진이를 내려다보고 있다.
점점 분노는 괴로움으로 고통으로 변하고 있다.
진이가 일어나 후원 참대숲 속으로 사라지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파묻는다.

S#51. 후원 숲 속

참대 숲 안의 개울에 물이 흐르고 있다.
진이는 그 물속으로 몸을 담근다. *무엇을... 생각하...*

S#52. 황진사댁 진이의 방 / 밤

어둑어둑한 방안에 무릎을 꿇고 의아한 얼굴로 쳐다보고 앉아있는 놈이.

놈이

아씨... 이 밤에... 어인 일로 소인을....

텅 빈 방안엔 촛불 하나 켜있고
진이, 저만큼 맞은편에 앉아 말없이 촛불을 바라본다.

진이

“나를 좋아해요?”

멈칫 굳어지는 놈이

진이

“왜 대답을 안 해요?”

당황스러운 놈이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진이

“내가 좋아요?”

놈이의 얼굴이 숯덩이처럼 달아오른다.
그런 놈이를 보고 있던 진이, 대답듣기를 포기한 채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진이

“됐어요. 그런 실없는 다짐이나 받자고 이 밤에 당신을 부른 건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좋아하든 말든 그건 아무 관계없어요.
난 당신을 누구보다 믿을 수 있구 의지할 수 있는 성실한 사내이기
때문에 내 앞일을 놓고 중대한 의논을 하고 싶어요.”

안절부절 못한 채 두 주먹으로 무릎만 쓸어내리는 놈이

진이

당신도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제 앞에는 세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황진사택의 비천한 딸로서 어느 부귀한 양반을 골라서 첩실로 들어앉는
것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입니다....

놈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 아씨...

그 말에 천천히 눈을 돌려 놈이를 바라보는 진이.

진이

두 번째 길은 어머니가 이택의 종이니 나도 종 문서에 이름을 올리구
평생 이집에서 종노릇을 하는 겁니다.
... 그러구... 여기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 사실 이 길은 나로서도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생소하고 무서운
길입니다.
청루에 몸을 던지는 길입니다. 내 어머니처럼 말이에요.

놈이

(얼굴 잿빛으로 변하며) 아... 아씨...!

진이

어떻게 생각해요? 당신은 내가 어느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어디 한번,
골라보세요.

무릎을 움켜쥔 놈이의 손, 부들부들 떨리며
마치 폭발할 듯 시뻘겋게 핏발서며 달아오르는 놈이의 눈.

진이

... 난 청루로 가렵니다.

놈이

안됩니다, 아씨!...

진이

그러자면 이런 나를 돌봐주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청루에선 그런 것을 기둥서방이라 한대지요?
난 당신을 내 기둥서방으로 골랐습니다.

놈이

아씨!...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이

기생으로 나서기로 작정한 지금, 여인의 정절이란 거추장스런 족쇄에 불과해요. 허니 거래를 하자는 말입니다.
내가 당신한테 정조를 드릴 테니, 당신은 내 기둥서방이 되어주는 겁니다.

진은은 놈이의 시선을 피하며 천천히 일어나 지축 등이 걸린 기둥으로 간다.
진이가 등불을 끄려하는데

놈이

안됩니다, 아씨! 그러지 마세요 아씨?...제발 !

진이

왜요, 제 기둥서방 노릇이 싫은가요?

놈이

아니,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진이

그럼, 내가 싫은가요?

놈이

(무너지듯 두 손으로 땅바닥을 짚으며) 아씨이...?!
차라리 이 놈을 죽여주십시오. 아아... 제가 죽일 놈입니다, 아씨!

처참한 얼굴로 절규하듯 부르짖는 놈이.
진은은 지축 불을 꺼버렸다.
진은은 놈이 앞에 마주 앉는다. 놈이의 뺨을 쓰다듬는다.
놈이는 갑자기 얼음물을 뒤집어쓴 어린애처럼 와락 진이의 품속에 안긴다.

놈이

“아씨”

놈이가 울고 있다.
들쭉이는 놈이를 꼭 안으며 놈이의 풀어진 머리를 때만져 주는 진이
~~놈이의 흐느낌이 잦아들고 가쁜 숨결로 변한다.~~
진을을 안고 있던 놈이의 손이 진이를 더듬는다.
놈이의 달려드는 힘에 밀려 쓰러지는 진이.
? (놈이 손이 진이의 살결을 파고든다.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놈이 손.
진의의 입에서 산음소리가 새여 나온다.
놈이의 얼굴을 피해 옆으로 얼굴을 돌리는 진이.
모든 걸 포기한 듯 눈을 감는다.
눈물이 흐른다.
점점 어두워지는 화면

S#53. 송도 시내 / 낮

화면 밝아지면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웅장하고 활기찬 송도부중의 모습.

그 모습 위로 5년 후 자막 떠오른다.

관원

물렀거라! 송도 류수 행차시다!

우렁찬 관원의 목소리 들리며 사람들 물이 갈리듯 양옆으로 비껴서면

사인교에 올라앉은 송도 류수 김희열(30)의 모습이 보인다.

한눈에도 명민하고 호탕해 보이는 호인형의 얼굴이다.

행차가 지나간 자리 옆 마방집에 사람들이 앉아 대낮부터 술잔을 기울이고 있다

멀리 한양에서 평양에서 명월이 얼굴한번 보자고 달려온 사람들이다.

사내1

“명월이가 저 기세 좋은 송도 류수의 수청도 거절했다지 않은가? 그것도
모르고 찾아온 우리가 잘못이지”

사내2

“기생이 사또 수청을 거절해도 되는 겐가? 아니 사또도 그렇지 수청을
거절한 기생을 어찌 가만히 둔단 말인가.

사내1

“한양의 높으신 분들이나 만나는 명월이를 송도류수가 어찌겠나?”

사내3

“아니 작년에 나라님의 사위이신 려성위 송인이 평양나들이 가시다가
명월이 때문에 평양구경은 때려치고 송도에만 있다가 가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사내1

“이 양반 모르셔도 한참일세. 송인뿐입니까 영의정의 윤은보 어른이나
이조판서 소세양 어른이 명월이 학식에 반해서 어찌나 자랑을 하셨는지.
한양에선 명월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내2

“아니 나도 들은 얘긴데 말일세, 얼마 전에 벽계수 양반이 친구들과
송도에 왔었다가 명월이한테 콧대가 꺾이는 망신을 당했다는구면

S#54. 객사 방안

방안에 혼자 앉아 근엄한 표정으로 책을 읽고 있는 충남.

그때 창문 너머에서 소곤 소곤대는 남녀의 목소리, 들려온다.

책을 읽다 인상을 찌푸리는 충남.

이어서 간지러운 웃음소리 들려오자 참다못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다.

창문 밖을 내다보며 한바탕 호통을 치려다 그만 진이의 모습에 멍하니 넋을 놓고 바라보는 충남.

하얀 소복차림에 하늘거리며 웃고 있는 진이의 모습,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다.

사내2(N)

벽계수가 어찌나 군자인척 기생놀이도 연회자리도 마다했는지... 류수
사또가 명월이한테 도학군자 콧대 좀 꺾어달라고 부탁을 했다네. 그러자
명월이가 마치 외로운 과부인양 꾸며서 끝내 벽계수를 객사에서 끌어내
스스로 자기를 찾아오게 했다네.

객사 방안에 앉아서 책을 읽는 충남.

괴똥, 밥상을 들고 안으로 들어온다.

충남, 정갈하지만 정성이 깃들어 보이는 밥상을 멍하니 쳐다본다.

슬쩍 돌아보면 창문너머로 수줍은 진이가 보고 있다 시선을 피하며 문밖으로 사라진다.

충남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선다.

S#55. 객사 옆 민가

바람에 빼걱대며 이리저리 흔들리는 부엌 문.

방안에서 소복을 입은 진이가 나오더니 부엌문을 닫아건다.

진이, 그리곤 다시 방안으로 들어간다.

그 모습을 사립문 밖에서 몰래 지켜보던 충남. 갈등하는데

그때, 후드득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당황한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는 충남.

참을 수 없다는 듯 진이방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충남.

방안에 들어와 뚫어져라 진이를 쳐다보는 충남.

진이

나, 나으리...

충남

(진이의 손목을 붙잡으며)미, 미안하다....

2 (그리고는 진이를 얼싸안고 입술을 부비는 충남. 험뎌대며 진이를 끌어안고 얼굴이며 목덜미며 미친 듯이 뜨거
운 입술을 비벼대는 충남.

사내2(N)

“명월이 앞에서 도학군자가 어디 있겠나. 다들 잘난척하느라 꾸며대 봤자
명월이 앞에선 하찮은 수컷에 불과하지”

진이, 충남 앞에 준비해둔 지필묵을 내민다.

충남, 그 정도야 못해주겠냐는 듯이 붓을 들면 종이 대신 자신의 속치마를 펼치는 진이.

충남, 그런 진이의 얼굴을 쳐다보다 치마 위에 시를 적기 시작한다.

밤에 가득한 달빛은 / 연기 없는 촛불이요
팔 베고 누운 미인은 / 오매불망 내 님일세.

사내2(N)

“한밤을 보낸 벽계수가 명월이 치마폭에 글을 써줬다네”

동헌 연회장

호장

사또. 명월이 대령입니다요.

희열

어서 들라 해라.

친구들, 명월이란 말에 일순 반색을 하며 술렁이고
충남,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외면하고 앉았는데
화려하게 단장한 진이, 동헌으로 들어와 절을 올린다.
진이, 천천히 눈을 들어 그런 충남을 바라보는데
얼음으로 빚은 듯이 아무런 표정도 감정도 없는 진이의 얼굴.
충남, 긴가 민가 하는 표정으로 그런 진이를 뚫어저쳐 쳐다본다.
그만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리는 충남.
천천히 희열의 앞에 곱게 접은 속치마를 내미는 진이.
희열, 속치마를 펼치면 충남이 쓴 시가 적혀있다.

호젓한 방안에서 / 운우지락 즐거운데
루수 그릇에 다하여 / 어느새 리별인가...!

빙그레 웃으며 그런 충남을 바라보는 진이.

그대 한번 작별하면 / 만날 길이 아득해라
이제 또 어느 곳에서 / 미진한 정 이어보랴....

처참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동헌을 나가는 충남.
순간 기다렸다는 듯 요란하게 터지는 친구들의 호탕한 웃음소리.
희열, 만족한 얼굴로 진이를 쳐다보며 빙그레 웃는다.

사내2(N)

“세상에 군자가 어디 있고 성인이 어디 있는가. 다들 그 잘난 껍데기들
뒤집어쓰고 속으론 온갖 추잡스러운 짓은 다하는 게 독야청청 군자들
아닌가.”

S#56. 마방집

술을 따르던 사내 말을 이어간다.

사내1

“아니 그게 어디 군자들뿐인가. 중놈들은 어떻게 글썽 귀범사에 생불이 된
지족선사라고 있었는데 그가 명월이 때문에 생불이 됐다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모여들어 본격적으로 이야기판이 벌어졌다.

S#57. 몽따쥬

- 꼬리떡을 들고 아이들이 가져온 수리취떡과 맞바꾸며 즐거워하던 만석이 앞에 진이가 나타난다.
얼어붙은 만석 떡을 손에 쥐고 진이만 바라보고 있다.

사내1(N)

“원래 만석이라는 중이었는데 시주 동냥하러 속세에 내려왔다가 명월이를
보고 상사병에 걸린 게야.”

- 지족암자에 혼자 가부좌를 하고 앉은 만석. 날이 바뀌고, 계절이 바뀐다.

사내1(N)

“결국 명월이를 떨쳐내려고 좌선을 시작했는데 글썽 6년을 먹지도 눕지도
않고 앉은 채로 방안에서 생불이 됐다는 거야”.

- 법당 앞에 시주행렬이 끝도 없이 서있다.

사내1(N)

“그때부터 귀범사는 재물벼락을 맞은 거지 시주가 끈이지 않고 생불을
보러 조선팔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네.”

- 땡중 여러 명이 봉해놓은 문을 뜯고 들어가 몸부림치는 만석이를 붙잡고 강제로 약물을 입에 붓는다.

사내1(N)

“근데 그게 사실은 귀범사 땡중들이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만석이라는
중을 매질로, 또 정신이 혼미해지는 미치광이 약초로 지족선사를 만들어
낸 게야. 하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지.”

- 진이가 지족암 앞에 가서 절을 하자 안에 앉아있던 만석이 괴성을 지르며 문 앞에 매달린다. 그러자 땡중들
이 달려들어 만석이를 제압하고 진이를 다른 쪽으로 데려간다.

사내1(N)

“그런데 명월이가 자기 때문에 생불이 된 지족선사를 만나러 갔는데 글썽
생불이 괴성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6년이나 고행을 한 부처가
어떻게 한 여인 때문에 그렇게 되겠나.”

- 원목 대사와 마주 앉은 진이.

불상을 향해 절을 하는 진이. 옆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진이를 훑쳐보는 원목 대사.

- 진이가 누워 있는 방에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오는 원목 대사 진이를 덮친다 달리기 걸음
그때 밖에서 괴똥이와 그 일당들이 큰소리를 내며 진이를 부른다.
진이는 황급히 원목 대사를 쌀뒤주에 가두고 괴똥이와 일당들을 방으로 들인다.
뒤주를 메고나가는 일당들.

사내1(N)

“결국 명월이가 귀법사의 주지인 원목 대사를 유혹해서 뒤주에 가두고 그
모든 비밀을 밝혀 낸 거야”

- 지족암에서 만석이를 업고나오는 괴똥이와 일당들. 눈이 풀려 났 나간 만석이.

사내1(N)

“그 불쌍한 만석이는 그길로 지족암의 골방에서 풀려났고 명월이가
마련해준 송도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촌락에서 병을 치료하고
있다는구먼.”

S#58. 마방집

벌써 술병이 상 옆으로 즐비하고 연신 술을 들이키는 사람들.

사내2

“그런 명월이가 따르는 술을 못 받을망정 얼굴이라도 구경하고가야 할 것
아닌가.”

사내3

“근데 명월이 기둥서방이 화적때 두목이란 소문이 사실인가요?”

사내1

“화적때가 뭐니까 그놈 흉악하기로 명월이만큼 유명합니다. 명월이
기둥서방이 되고나서는 더 흉폭해져서 세상이 모두 무서워했답니다.
그러다가 명월이를 욕보인 형방을 찾아가 난도질하고 화적때가 됐다구
하더군요. 사실이지 송도에서 권세가라는 양반들도 후환이 두려워
명월이한테 함부로 못한다고 합니다.”

사내2

“세상이 어찌될는지 맘 놓고 계집절도 못하는 세상이 됐으니...”

난봉꾼들의 술상을 등지고 조용히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사내의 뒷모습.
놈이가 변장을 하고 앉아 그들의 얘기를 듣고 있다.

S#59. 명월집 진이의 방 / 낮

한낮이 되어서야 눈을 뜬 진이
아무런 감정도 표정도 없는 눈길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본다.

할멈

해가 중천인데 언제까지 그러구 누워 계실 테요?
일어나요, 일어나서 저 맑은 햇빛 좀 보시구라.

할멈, 일부러 방문마다 다 활짝 열어 제치고
진이, 그 바람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매만진다.
그러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면 뒷마루에 외롭게 놓여있는 첫물앵두.

할멈

괴똥이가 가져왔습디다.
한 사나흘 만에 돌아온 걸 보니 아마 그리 멀리 있진 않은가 보오.
... 늬이 말입니다.

그때 이금이가 진이 앞에 화려한 비단 보자기에 사인 선물 상자를 들고 들어온다.

이금이

사또께서 내리시는 거라면서 어제 호장 나으리가 직접 들고 왔었어요.

이금,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는 가운데
화려한 비단 보자기에 싸인 희열의 선물을 받아드는 진이.

할멈

사또도 참. 저는 어제 영 꺼림직 합니다요.
아씨께서 수청기생이면 또 모를까, 멀쩡히 매향일 곁에 두시고는
허구 헛 날 아씨를 불러대시는 것도 그렇고...

진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앞으론 내 조심할게요.

아금

(조바심을 내며) 아씨, 어서 풀어보세요.

진이, 천천히 비단 보자기를 푼다. 자개로 장식한 아름다운 함이 나타난다.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함을 열더니 잠시 놀란 듯 쳐다보다 이내 빙그레 웃는다.
무릎걸음으로 다가와 함 안을 들여다보는 이금과 할멈

이금

에게? 이게 뭐랍니다?

진이, 낡은 책 한 권을 함 안에서 소중하게 꺼내든다.

진이

아주... 귀한 물건이다. 조선에선 구하기 힘든 이보의 시집이야...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물러서는 할멈과 이금.
하지만 진이, 소중하게 시집을 꺼내들곤 한 장 한 장 펼쳐본다.

S#60. 김대감 집 / 낮

한 호화로운 양반집.
희열, 지역의 양반들 십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인교에 올라타 집을 나간다.
못마땅한 얼굴로 그런 희열의 뒷모습을 쳐다보다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가 술상 앞에 앉는 양반들.

양반1

목불인견일세. 언제부터 그렇게 백성들을 생각했다고 아주 목민관 행세를
하려 드는구만.

김대감

세전 짓는 노비들 닦달할 생각은 않고 우리보곤 낼 것 다 내라니.
어디 우리한테 뵈보이고 류수 생활 얼마나 잘하는지 어디 한번 지켜보세.

옆에서 술술 눈치를 살피다 술잔에 술을 따라주는 기생들.

김대감

명월이 그넌은 어찌 아직도 안 왔느냐?
그것이 사또의 귀염을 받는다고 아주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게지!
당장 가서 끌고 오든 업고 오든 당장 대령시키지 못할까?!

S#61. 명월집 / 낮

외출 준비를 하고 나서는 진이.

할멈

내키지 않겠지만 어찌겠수. 그냥 꼭 참구 얼굴만 보이구 오시구라.

진이, 신을 신고 나서다 문득 쳐다보면
저만큼 담벼락에 숨어서는 소곤대다 진이를 보고는 얼른 탄전을 피우는 이금과 피똥이.

할멈

보셨수? 저것들이 저렇게 찰싹 붙어다는 게 벌써 언젠지 모릅니다.
살림을 차려주든 어떻게 수를 내야지 원 눈썹 서서....

생각에 잠기며 저만큼 마당을 쓴다 수선을 떠는 이금이를 바라보는 진이.

S#62. 김대감집 / 낮

술은 이미 많이 기울었고 절편한 분위기가 무르익어
양반이고 기생이고 속옷 바람으로 음탕한 술자리가 이어지고 있다.

기생1

(김대감의 손을 뿌리치며) 사또도 못한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러세요.

김대감

이년 보게 수청 거절한 기생을 가만히 놔둔 게 사또가 못한 탓이지
어떻게 기생 년이 잘난 탓이나

기생1

그럼 어르신은 왜 명월이를 맘대루 못하세요. 언제 명월이 손목한번
잡아보셨어요. 명월인 우리하곤 달라요.

양반 1

(술잔을 들다말고) 아니 이년이 못하는 말이 없네. 어르신을 뭘루 보구.
천한 것이면 천하게 굴어야지 명월이는 기생이 아니란 말이냐!

기생1

그럼 어디 해보세요. 제가 상목 한 동을 걸겠어요. 만약 못하시면?

김대감

오냐! 좋다 그럼 나는 상목 두 동이다.

진이가 괴퐁이를 데리고 방 앞에 와 있다..
방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간드러지는 기생들의 웃음소리에 고개를 돌리는 진이

괴퐁이

김새가 영...(고개를 가웃하며) 그냥 돌아가시는 것이....

진이

아니다 어차피 한번은 치러야 할 일이다..
(방안을 향해) 나으리 명월이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진이.
방안의 풍경이 당혹스럽다.
절을 하는 진이
관적인 시선으로 쳐다보는 양반들 앞에서 거문고를 꺼내드는 진이.
진이, 막 거문고를 뜯으려는데

김대감

그건 됐구, 명월이 네년이 오늘 내 수청을 들어야겠다.

진이, 의아한 얼굴로 쳐다본다.

김대감

이리 옆에 와서 앉거라.

기생1이 자리에서 일어나 옆으로 나앉는다.

진이

...천네, 한곡 연주해 올리겠습니다.

진이, 다시 거문고를 뜯는데 순간, 그런 진이 옆에 날아와 부서지는 술잔.

김대감

저런 고안 녀를 봤나! 기생 년 주제에 하라면 하는 게지...
내가 사또의 권세를 등에 얹고 지금 우리한테 유세하는 게냐?

진이

어찌 지체 높은 양반들 남께서...시전거리 하정배나 하는 말을 입에
담으시는지요?

양반들

뭐야? 허어, 저런 고안 녀를 봤나?!

진이

... 천네, 그만 물러가웁니다.

진이, 그리곤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그런 진이를 잡아당겨 주저앉히는 김대감.

김대감

이런 발칙한 년!

그리곤 철썩 진이의 뺨을 때린다.

cut to>

문밖에 괴똥이 사태가 심각함을 파악하고 뛰어 들어가려다 멈칫 망설인다.
재빨리 뛰어나가는 괴똥이.

cut to>

진의의 저고리를 찢듯이 벗겨내는 김대감.
김대감을 밀쳐내는 진이.
다시 진이 뺨을 갈기며 진이위에 올라타는 김대감.
보기가 민망한지 고개를 돌리며 돌아앉는 양반들.
기생1이 달려들어 김대감을 말린다.

기생1

나으리 고정하세요.

날아오는 김대감의 주먹에 나가떨어지는 기생1.
진이의 차마를 들 취 속옷을 찾아내는 김대감. 미친 짐승처럼 달려든다.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는 양반들.
진이 있는 힘을 다해 김대감을 밀쳐낸다.
반대편으로 나가떨어지는 김대감.

김대감

이년이 정말...

다시 정신을 차린 듯 독이 올라 진이를 죽여 버릴 듯 달려든다.

형방 비장(N)

어 힘! 안에 명월이 있느냐!

순간, 형방 비장. 목소리에 양반들, 얼른 자세를 고쳐 앉는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형방비장

양반2

형방이 여, 여긴 웬일이요?

형방이란 말에 멈칫하는 김대감.
보기에 민망한 형방 다시 기침을 한다.
형방 뒤편 괴똥이가 주먹을 불끈 쥐고 서있다.
그제야 일어나 옷을 추스르는 김대감
재빨리 올라가 진이를 부축하는 괴똥이.

형방

(진이에게) 가자! 사또께서 급히 찾으신다.

진이의 분노에 찬 눈길을 피하는 김대감
형방을 따라 연회장에서 내려오는 진이
진이를 따라 양반집을 나서면서 두고 보라는 듯 양반들을 돌아보는 괴똥.

S#63. 관아 별채 / 밤

희열, 매향이 시중을 드는 가운데 민순과 술상을 두고 마주 앉아있다.

희열

허어. 화답이란 자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옵니까?

민순

어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수학이나 공부하는 고루한 선비라고
비아냥거리지만 마당에서 뛰노는 참새 무리들이 어떻게 바다를 건너가는
기러기의 뜻을 알겠습니까? 그런 분을 조정에 모셔야 이 나라의 사직이
바로 설 터인데 도무치 관직이나 벼슬에는 관심이 없어하니...

희열

(비아냥대는 투로) 이런...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줄
몰랐군요.

그때 진이가 어두운 얼굴로 누마루로 걸어오는 것이 보인다.

희열

오, 이제야 오느냐? 인사 올리거라. 이조정랑 민대감 어른이시다.

폐허가 된 만월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있다 고개를 돌려 진이를 보는 민순.

cut to>

민순, 진이와 얘기를 나누느라 옆에 앉은 매향은 물론 희열도 안중에 없다.

민순

그러니 자네가 <주역>까지 읽었던 말인가? 게다가 <한비자>도?

진이

사실 원제는 무엇 보다두 병서가 맘에 끌립니다.

민순

<손자>를 읽은 모양이군 그래.

진이

<손자>보다 <위료자>를 더 좋아하죠.

민순

이를테면?

진이

훌륭한 나라는 백성들이 잘살고 그러저러한 나라는 선비들이 잘살고
겨우 유지되는 나라는 벼슬아치들이 잘살고 곧 망하려는 나라는 왕실의
창고가 넘쳐난다는 글이 <위료자>의 '전위편'에 있습니다.

민순

허 참, 놀렐 노자일세. (생각난 듯) 자네 혹시 꽃 늪에 계시는 화담 선생을
찾아뵈실 일이 있는가?

진이

아니요.

민순

자네처럼 학문을 깊이 아는 사람이 화담선생 같은 성현을 아직 찾아뵙지
않다니 말이 되나? 창피한 일일세. 창피한 일이야.

진이, 그 말에 문득 얼굴 어두워지며 입술을 깨문다.
이윽고 쓴웃음을 지으며

진이

나으리께서는 제가 천한 기생 년인 것을 잠시 잊으셨나 봅니다.

그 말에 당혹스런 얼굴로 진이를 쳐다보는 민순.

진이

저같이 천한 몸이 그분을 찾아뵙다 한들, 그분께서 저 같은 걸
만나주시겠습니까?

민순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니시다.
그럴 것 없이 내 이 길로 다시 꽃 늪으로 가서 그분을 한번 뵈시오마.

일이 재미있게 돌아간다는 듯 진이를 쳐다보는 희열.

S#64. 관아 앞 / 밤

관아의 쪽문이 열리며 진이 밖으로 나오면
저만큼 괴똥이 초롱을 든 채 기다리고 앉아있다 진이를 보자 얼른 일어서 다가온다.

진이

여태 기다리고 있었느냐?

괴똥이

아씨 괜찮으세요?

진이

고맙다 내가 신세를 졌구나.

괴똥이

아닙니다, 아씨. 이때 늪이 삼촌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 벼락 맞을 늪의
모가지를 확 그냥...

진이

아서라, 행여 그런 생각일랑 마라. 그 뒷감당을 누가하라고...

괴똥이

그럼요 아씨. 핫김에 하는 말입죠. 헤헤...

머리를 긁적이며 슬금슬금 진이의 눈치를 보는 괴똥이

진이

...내게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게지.

그 말에 움찔하며 뭐라 말은 못하고 말없이 앞장서는 괴똥.

S#65. 다리 위 / 밤

다리 위에 서서 바람에 날리는 꽃잎을 바라보는 진이.

진이

이금이 얘기라면... 그건 안 된다. 단념해라.

괴똥

아씨?!

진이

이금이는 내 친동생 같은 아이다.

네가 누구냐. 화적떼와 손잡은 소악패의 두목이며 송도부중에 소문난
싸움꾼이고 기생방의 매질꾼... 그런 너를 서방으로 맞은 이금이가 행복할
것 같으냐?

괴똥

(폭발할 듯) 아씨?!

독이 시퍼렇게 오른 눈길로 진이를 노려보는 괴똥.

진이, 말없이 그런 괴똥을 마주보면 괴똥의 눈길, 어느새 힘없이 풀어지며 풀썩 주저앉는다.

괴똥

허면... 저 보러 어찌하란 말씀이십니까?

이금이 없이는 한순간도... 못살겠는데요.

그리고는 고개를 치박고 어깨를 들썩이며 호느끼는 괴똥.

진이, 그런 괴똥을 말없이 쳐다보다 다시 떨어지는 꽃잎들로 힘없이 시선을 돌린다.

이윽고 들썩이는 괴똥의 어깨에 말없이 얹히는 진이의 손.

진이

이제 그만 일어나거라. ...내.. 너희들을 도와주마.

괴똥, 그 말에 놀란 눈을 하고 진이를 쳐다본다.
비칠비칠 일어서는 괴똥.

진이

날이 밝는 대로 놈이에게 가거라. 가서 내가 보잔다구 전해.

괴똥

예? 삼춘을요?

진이

내가 화적떼와 손을 끊는 것은 그이 손에 달렸기에 그래. 안 그러니?

그 말에 머뭇대며 시선을 돌리는 괴똥.

괴똥

헌데... 삼춘께서 아씨를 뵈겠다고 하려는지...

진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내가 찾아가서 만나구 싶음 만나는 게지.
그것도 그이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든?

괴똥

그게... 아씨, 삼춘을 그냥 예전처럼 생각하심 안 됩니다.
삼춘은... 그간 많이 변했습니다요.

무슨 말이냐는 듯 괴똥을 쳐다보는 진이.

S#66. 김대감 집/밤

김대감 집 담벼락을 훌쩍 뛰어넘는 복면을 한 사내.

조용히 뒷문을 연다. 문이 열리자 복면을 한 사내들 여러 명이 뛰어 들어온다.

행랑채에 잠자고 있던 하인들 갑작스러운 사내들의 공격에 허망하게 쓰러져 포박 당한다.

대문이 열리고 화적떼가 몰려들어와 창고를 털어낸다.

일순간 아수라장이 되는 김대감 집.

소란한 소리에 놀라 김대감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시퍼런 칼끝이 눈앞을 가로막는다.

놀라 올려다보는 김대감.

복면을 한 사내 거침없이 김대감의 왼쪽 눈을 찌른다.

눈을 감싸고 고통스러워하는 김대감.

놈이

“네놈 눈에 흐르는 핏물이 니놈이 거둔 힘없는 백성들의 피눈물이다.”

칼을 머리맡에 내리꽂는 사내. 홀연히 사라진다.
아픈 눈을 부여잡고 기어 나오는 김대감.
이미 곳간은 불에 타고 온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있다.

S#67. 명월집 진이의 방 /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진이의 모습위로 괴똥이의 목소리 들린다.

괴똥(N)

헌데, 아씨께선... 왜 우리 삼춘을 싫어하십니까?

조그맣게 한숨을 내쉬며 불을 끄려 촛불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진이.
그런데 촛불 너머 저만큼 어둠 속에 놈이가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시뻘겋게 핏발선 눈으로 웅크리고 앉아있다.
흠칫하며 그런 놈이를 쳐다보는 진이.

놈이(N)

아씨...! 저도 사람입니다. 더는 이대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S#68. 몽따쥬 (회상)

- 마치 페인처럼 뉘이 나가 몸만 남은 사람처럼 허우적허우적 걸어오는 놈이.
명월 집 진이의 방문을 지나다 걸음을 멈추면
방문 너머 들려오는 헉헉대는 사내들의 숨소리와 진이의 가느다란 신음소리...
놈이, 마치 정신이 돌아온 사람처럼 두 눈을 부릅뜨고 덩석 방 문고릴 붙잡지만 부들부들 떨리던 놈이의 손, 이
내 스르르 힘이 빠지며 저만큼 휘청휘청 비틀대며 뒷걸음질치는 놈이.

놈이(N)

이것은 분명 하늘에서 내리는 천벌입니다.
늘 아씨 곁에 있으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아씨의 술에 취한 목소리를 듣고
침방의 신음소리를 듣는 것은 견딜 수 없는 형벌입니다.

- 술로 엉망이 된 채로 어두운 방구석에 처박혀 멀거니 초점 없는 눈으로 앉아있는 놈이.
그런 놈이의 모습, 현금이 앉아있던 언덕 위에 멍하니 앉아있는 놈이의 모습으로 변한다.

- 담벼락에 바짝 기대서서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어린 진이(7).
순간 담장 위로 불쑥 모습을 드러내는 어린놈이(12).
그러다 진이와 눈이 마주치자 두 사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를 쳐다본다.

- 다급한 얼굴로 무슨 말인가를 주고받곤 두셋씩 짝을 지어 사방으로 흩어진다.
카메라 활짝 열린 대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면
마당엔 황진사와 진이 모,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성이며 서있다.

하인들

애기씨! 진이 애기씨?! 어디 계세요, 애기씨?

햇불을 든 채 진이를 찾아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는 하인들.
담장 너머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고 집안을 살펴보던 놈이,
하인들 가까워오자 얼른 고개를 숙인다.

놈이

(안절부절하며) 어떡하지? 너 땀에 난리가 났나본데.

진이, 겁먹은 얼굴로 놈이를 쳐다본다.

놈이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며) 걱정 마 이리 와.

놈이, 진이의 손을 잡고 조심스레 담벼락을 도는데 순간 갑자기 누군가 놈이 앞에 햇불을 들이민다.
- 뒷짐을 진 채 천천히 놈이를 향해 다가오는 황진사.

놈이

여, 영감마님... 저, 저는 그냥...!

순간, 사정없이 놈이를 향해 채찍을 내리치는 황진사.
놈이의 얼굴에 순식간에 채찍 자국이 그어지며 굵은 핏방울이 솟는다.

황진사

버려지 같은 놈!
부모 없이 혼자된 걸 불쌍히 여겨 거두어주었더니
천한 생 상것 놈 주제에 감히 양반 댁 여식을 희롱하려 들어?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돌려 황진사를 바라보는 놈이.
두려워하기는커녕 이를 앙다문 채 황진사를 노려보는 놈이의 눈빛엔 시퍼렇게 날이 서있다.

황진사

내, 오, 오늘 이놈을...!

끓어오른 놈이를 향해 사정없이 내리쳐지는 채찍질.
놈이, 날아오는 채찍에도 비명 소리 하나 없이 이를 악물고 앉아있다.

놈이(N)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상놈인 저와 양반 댁 애기씨와는 절대로 땀어질 수 없다는 걸...

- 진이의 별당 뒷마루에 나뭇잎에 싸인 첫물앵두를 놓아놓고 훌쩍 담장위에 뛰어올라 다시 한번 별당 방문을 쳐다보는 놈이.

놈이(N)

다시 돌아올 땐 훌륭한 인물이 되어 아씨 앞에 나타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 훌륭한 인물인 진 몰라도 어쨌든 아씨 곁에 뿔뿔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 어린놈이 붓집을 지고상단을 따라가다 도적 때를 만나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져 도망친다.
- 시전바닥에서 건달패들과 패싸움을 벌이는 놈이. 미친 듯이 건달들을 메다쫓는 놈이.
- 세금을 걷고 있는 놈이 패거리 그때 밀어닥치는 병사들. 날아오는 창과 칼을 피해 달아나는 놈이. 병사들 뒤에서 지켜보는 양반 놈.
- 몰래 양반집에 들어가 그 양반 놈의 목을 따고 빼앗긴 물건들을 되찾아오는 놈이 패거리들
- 돈과 보물들을 나누는 놈이 각자 흩어지는 놈이 패거리들
- 황진사댁 효자문을 열고 들어가는 놈이 곡물더미를 싣고 있는 달구지들이 뒤따른다.

놈이(N)

하지만... 아씨 곁을 떠난 10년 동안 제가 스스로 깨달은 건 이 망할 놈의
세상에서 상놈으로 태어나서는 훌륭한 인물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창문 너머로 하인들이 마당에 부려놓는 곡물더미들을 말없이 바라보는 진이 모.
- 저 만큼 앞에는 놈이(22)가 버티고 앉아있다. 놈이를 바라보는 진이 모.

진이 모

... 몰라보겠구나. 그래, 그동안 어디서 무얼 하고 지냈는가?

놈이

...여기 저기... 세상물정 공부하고 다녔습니다.

진이 모, 다시 한번 마당의 곡물더미들을 쳐다본다. 쇠락한 양반가의 고단함이 느껴지는 표정이다.

진이 모

자네가 차지 일을 맡아주겠는가?

그 말에 가다 부타 대꾸 없이 말없이 앉아있는 놈이.

- 놈이, 굳게 닫힌 쪽문을 활짝 열어 제치면, 땃돌 위에 서서 놈이의 모습을 뵈히 쳐다보는 진이(17)
- 눈부시게 성장한 진이의 모습에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놈이.
- 순간 뵈히 놈이를 쳐다보던 진이의 얼굴에 당돌한 미소가 번진다.

진이

네가 정말 놈이냐?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진이 앞에 고개를 숙이는 놈이의 모습

놈이(N)

설사 된다 해도 반상의 높은 담장을 뛰어넘어 아씨 곁에 설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 언덕 위에 앉아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고개를 쳐드는 놈이.
그런 놈이 앞에 저만큼 앉아선 멍하니 진이의 모습을 바라보는 현금의 뒷모습이 보인다.

놈이(N)

그 분이 아씨의 친어머니란 건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그만 또 한번 허황된 꿈을 꾸었습니다.

- 윤승지 댁 앞에서 망설이며 안절부절못하던 놈이 결심한 듯 대문을 두드린다.

놈이(N)

상놈인 내가 반상의 높은 담장을 뛰어넘어 아씨에게 갈 수 없다면
아씨가 그 담장을 넘어 제게로 오게 만들 수는 없을까....
아무도 모르는 아씨의 출생비밀을 윤승지 댁에 알린 건...
바로... 접니다.

- 다시 술에 취해 멍하니 뒤통을 놓고 어두운 방안에 앉아있는 놈이의 모습으로 돌아오면
저만큼 옆에서 소매로 눈가를 훔치며 편지를 쓰고 있는 괴똥이 보인다.

S#69. 진이방.

불을 끄고 반듯이 누워 있는 진이
문갑위에 올려진 앵두를 본다. 달빛을 받아 빛이 나는 듯 보인다.

놈이(N)

제 이름 석자두 쓸 줄 모르면서 감히 아씨를 넘보고 아씨를 불행의
나락으로 떠다민 이 미련하고 아둔한 놈이를... 아씨께선 절대로 용서하지
마십시오.

S#70. 박연폭포 / 낮

표정 없는 얼굴을 종이 샷갓 아래 가린 채
멍하니 말의 흔들림에 몸을 맡기고 산길을 올라가는 진이.

놈이(N)

더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씨...
이제 떠나면 다시는, 다시는 아씨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희열(N)

무얼 하고 있는 게냐?
이 장관을 구경도 안할 테냐?

진이, 정신을 차려보면 말, 어느새 멈춰서 있고, 희열의 목소리 들려온다.
종이 샷갓을 올려 쓰면 눈을 찌를 듯 환한 햇살아래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거침없이 쏟아지는 장대한 박연 폭포.
희열 그 앞에서 꺾꺾 호탕하게 웃으며 손을 내민다.
진이, 망설이다 그런 희열의 손을 잡으면
덱석 진이의 허리를 안아서 말에서 내려주는 희열.
진이, 여전히 자신의 허리를 두 손으로 안고 서있는 희열을 당황한 듯 쳐다보다
살며시 그런 그를 밀치며 몸을 뺀다.

S#71. 박연폭포 / 낮

거문고를 뜯고 있는 진이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희열.
이윽고 거문고를 뜯던 손길을 멈추는 진이.
희열, 막 무슨 말인가를 하려는데...

진이

(고개를 돌리며) 화담 선생을 모셔오셨다던 민정랑 어른께선 안 오시나
보옵니다.

멋쩍은 표정으로 몸을 일으키는 희열.

희열

그러게 말이다... 그 꽃늪의 서생원인가 뭔가 한테 내가 단단히 한방
먹었구나. (문득 장난 끼 어린 얼굴로) 네 생각엔 어떠냐. 민정랑의 말처럼
꽃늪의 서생원이 대학자요 성인인지 한번 알아보지 않겠느냐.

진이

원네가 무슨 재주로 말입니까?

희열

밥알 하나를 씹어보면 술 안의 밥이 익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게다.
땀 소리 말고 이번에도 네가 수고를 해주어야겠다.

진이

사또께선 진정으로 세상에 도학군자가 없다고 믿으십니까?

희열

그건 너도 마찬가지가 아니더냐.

진이

아닙니다. 전 진정한 도학군자를 찾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또께선 사또보다 훌륭한 군자가 없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 옴니까

희열

(호탕하게 웃으며) 네 년이 나를 속 좁은 군자로 만들
생각이로구나...하..하...
나야 도학군자이긴 애 저녁에 글러먹은 일개 한량ियो 수컷일 뿐이다.
도학군자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나 존경을 얻어 보자고 뒤집어쓴
탈바가지가 아니냐. 난 그저 그 바가지를 깨고 싶은 것뿐이다.
(진을를 보며) 수컷들의 본색을 까발리는 데는 명월이 만한 방법이 어디
또 있겠느냐

그리곤 껄껄 호탕하게 웃는 희열.

진이 그런 희열을 따라 자기도 모르게 빙그레 웃는다.

희열

어떠냐, 이제는 내 수청을 들겠느냐?

말없이 희열을 쳐다보는 진이.

희열

왜 대답을 못하느냐? 오호라. 이젠 니 마음이 흔들리는 게로구나.

진이

사또 역시 결국 때가 되면 이곳을 떠나실 분입니다.

희열

... 그럼 내가 송도에 눌러 살면 그뿐이지.

진이

벼슬길이 창창하신 사또께서 말입니까?

희열

그깟 벼슬이나 권세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더냐?

너 같은 아이를 곁에 두고 금수산천 유람하며 남은 평생 살 수 있담 내
그깟 거는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있다... 이만하면 되었느냐?

빙그레 웃음을 머금곤 진이를 쳐다보는 희열.

웃고 있지만 그 눈길은 금방이라도 상대를 휘어잡을 듯이 강렬하다.

그런 희열의 눈길을 피해 도망치듯 자리에서 일어나는 진이.

희열

이런, 어디로 도망치는 게냐?

진이

사또께서 주신 분부를 거행해압쥬.

회열

내 분부?

진이

돌아가는 길에 꽃 늪에 들러 서생원을 찾아뵈려구요.

회열

(금방 얼굴 밝아지며) 오, 그래?

그래라. 부디 잘해서 화전놀이 청했다가 거절당한 내 무안을 씻어다오.

빙그레 웃으며 종이삿갓을 머리에 올려 쓰는 진이.

S#72. 꽃늪 / 낮

견마 잡이가 이끄는 말을 타고 꽃 늪에 당도하는 진이.

저만큼 꽃 늪 옆에 단아한 삼간초옥, 서사정이 보인다.

cut to>

진이, 아무도 없는 마당에서 소박하고 정갈하기 그지없는 집안을 찬찬히 둘러보는데

그때 해맑은 얼굴의 초로의 노인 하나 낚싯대를 들고 마당으로 들어서다 멈춰 선다.

진이

저는 송도 부종의 청루에 몸을 담고 있는 명월이라 하옵니다.

천한 몸으루 화담 선생님께 배움 한 자락을 얻고자 당돌한 짓 인줄
알면서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고명한 선비님께 행여 욕이 되진 않을
런지요.

화담, 그 말에 잠시 진이를 물끄러미 쳐다본다.

화담

(이윽고) 학문을 논 하구 사물의 아치를 밝히는 일에 무슨 남녀의 구별이
있고 귀천의 구분이 있겠는가. 누추하지만 들어오게.

S#73. 서사정 / 낮->밤->낮

화병에 꽃 한 송이 호젓하게 꽃혀있는 정갈한 서재에 낮이 밤이 되도록

같은 자세 그대로 마주앉아서는 끝없이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

천천히 부채를 들어 흔들어 보이는 화담

화담

자, 보시게. 부채를 흔들면 바람이 생기는데 이 바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부채에서 나온다고 하면 부채 속에 언제부터 바람이 있었는가?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이 바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런 화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이야기를 듣는 진이.
화담, 은은하게 타고 있는 촛불을 훑 불어 끈다.
연기 타고르나 이네 바람에 스르르 흩어져 사라지면

화담

촛불을 끄면 처음엔 냄새가 나지만 곧 흩어져 없어지네.
분명 있던 것이 지금은 어디로 없어져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냄새를 이루는 기가 점점 얹어져서 그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것
일뿐 결코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네.

진이

허면 그 기라는 것은 어디에서 생겨난 것입니까?

화담

기란 생겨나고 혹은 없어지는 것이 아닐세.
그저 그 모습이 달라질 뿐이지.
물의 기가 모이면 물이 되고 흙의 기가 모이면 흙이 되고 채소의 기는
채소가 되네. 채소의 기는 그것을 먹는 소의 기가 되고 또 그 소를 먹은
우리 몸의 기가 되었다가 우리 몸 밖으로 배설돼 나가서는 다시 흙의
기가 되지. 이것이 기의 순환일세.

진이

허면 무엇이 기로 하여금 그렇게 모습을 변하게 만듭니까?

화담

그것은 기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일 뿐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네.

그 말에 잠시 인상을 찌푸리는 진이.

진이

저는 한때 양반집 아씨 진이로 불렸으나 한순간에 천한 종의 신분으로
전락해서 지금은 기생 명월이가 되었습니다. 허면 이것도 그 누구의 탓도
아니요 제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란 말씀이십니까?

화담, 그 말에 잠시 진이를 쳐다본다.
초당의 넓은 창문으로 보이는 티 없이 맑은 하늘.

화담

... 저 창밖을 보시게. 지금은 하늘이 맑아 해가 쨍쨍 하지만 어느 순간
구름이 몰려들어 비를 뿌리기도 한다네. 그 모습들은 서로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 그건 기가 움직여서 모이고 흩어지는 것일 뿐, 그 본래의
모습이 변하는 건 아니란 말일세.

... 자네가 진이로 불리건 명월이로 불리건... 내 앞에 앉은 자네는 그저
자네일 뿐... 어찌 다른 사람이라 하겠는가....

화담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원하게 쏟아지는 빗줄기.

한편 고맙고 한편 원망스러운 듯 만감이 교차하는 얼굴로 화담을 바라보는 진이.

S#74. 내아

쿵쿵거리는 발소리 들려오며

희열

그래 어찌 되었느냐?

방안으로 들어오기 무섭게 진이에게 묻는 희열.

말없이 희열을 기다리던 진이, 그가 앉기를 기다려 대답한다.

진이

원내는 송도에 쉬이 꺾을 수 없는 삼절이 있단 걸 알았습니다.

희열

삼절? 그래 그게 무엇이나?

진이

첫째는 박연폭포구요.

희열

그래, 건 그럴 듯 하구나.

진이

둘째는 화담 선생이시구요.

희열, 그 말에 정색하며 진이를 쳐다본다.

희열

허면, 꽃 늪에 간일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 말이나?

진이

저 역시 사또만큼이나 도학군자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만은 이번만은
예외인 듯싶습니다.

희열

너무 오래 산속에 처 박혀서 사내구설을 못하는 모양이군.

진이

아니요. 그분이 그렇지 않다는 건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알 듯 모를 듯 웃으며) 이번엔 사또께서 인정하시지요. 그분은... 정말
도학군자이십니다.

그 말에 불쾌한 듯 인상을 찌푸리는 희열.

희열

헌데.. 아까 셋이라 하였느냐? 그럼 나머지 하나는 무엇인고?

진이

그야 셋째는 원내 명월이지 누구겠습니까?

희열, 맹랑하다는 듯 그런 진이를 쳐다보고
그런 희열을 바라보며 느닷없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는 진이.

S#75. 명월집 진이의 방 / 낮

괴동, 진이 앞에 말없이 편지 한통을 내민다.
의아한 얼굴로 편지를 받아드는 진이.
편지를 펼쳐보면 소박하고 힘 있는 필체로 쓰여 진 단 한 줄의 문장이 보인다.

“아씨의 분부를 삼가 받들겠사오니 구태여 찾아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편지를 보고는 인상이 굳어지는 진이.

진이

(비웃듯이) 네 편에 전하면 그만인 말, 그래 겨우 이 한마디를 하자구
편지를 쓰라하든?

진이, 그리곤 내던지듯 편지를 내려놓는데

괴동

그건 삼촌이 직접 쓰신 편지입니다요, 아씨.

진이

(괴동을 쳐다보며) 무슨 말이나. 놈이는...

괴똥

그러기에 제가 삼춘을 옛날처럼 생각지 마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곤 괴똥 저만큼 멀어진다.

모옥이라도 당한 듯 꿈쩍 않고 앉아있던 진이, 괴똥의 모습 사라지자

바닥에 떨어진 편지로 시선을 돌린다.

S#76. 동원 내아

이방이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이방

“곡간에 쌓여있던 곡식들은 모두 실어가고 창고란 창고는 모조리
불탔습니다. 김대감은 왼쪽 눈을 실명한 채로 누워 있다 합니다.”

희열

“허허 참 이런 창피한 일이.... ”

이방

“관아의 창고를 텅 놔들과 같은 놈들인 듯 합니다. 때앗은 곡식의 반을
지난번처럼 동네어귀에 풀어놓고 갓답니다. 그것 때문에 성안에 사람들은
은근히 화적떼가 출몰하길 바라는 듯싶습니다. ”

희열

“도대체 뭇들을 하고 있단 말이나. 화적떼가 제집처럼 활보하고 있는데...”

고개만 숙이고 있는 이방과 그 무리들

이방

“저... 어찌해야할지. 양반들을 죄다 와서 저러고 들 있으니”

S#77. 동헌 마루

성안의 모든 양반들이 다모인 듯 수십 명이 동헌 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화를 식히고 있다.

양반 1

“도대체 나라꼴이 어찌 되려고 화적 때 하나 처단하지 못한단 말이요.”

양반2

“백성들은 도적놈들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데 사또가 꽃놀이나 다닌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뒤에서 호통을 치며 나타난 희열.

희열

“네 이놈 송도 류수가 니놈 집이나 지키는 강아지새끼란 말이나?”

양반2

“아니 사또 그게 아니라...”

희열

“갓 쓰고 도포 걸치면 모두가 양반이나? 누가 도적질을 하느냐 그놈들은
날 때부터 도적놈이란 말이나. 배고프고 헐벗어 도적이 되는 것을. 글이나
읽었다는 작자들이 고작 백성운운하며 지 놈들 목숨이나 지켜달라고
나라님의 명을 행하는 류수에게 무슨 망나니 같은 행동이나.”

일순 조용해지는데

희열

“도적을 잡는 일은 나라가 하지만 도적을 만드는 일은 니놈들이 하는
짓이 아니냐.

양반3

“아니 사또 말씀이 지나치시지...”

희열

“니놈들의 집안을 모두 뒤져 그것을 밝혀도 되겠느냐?”

양반4

“아니 사또 노여움을 푸십시오. 저희가 찾아온 것은 나라가 뒤숭숭하니
우리가 뭐 도울 일이라도 있을까 해서 온 것이지 뭐 다른 뜻이 있겠소.”

희열

“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놈들의 목을 송도 네거리에 걸어 올릴 테니
다시는 동헌을 더럽히는 일이 없게들 하시오. 뭐들 하느냐 어서
어르신들을 동헌 밖으로 모시지 않고...”

희열의 눈에 오른 독기에, 모두들 쳐다보지도 못하고 슬금슬금 빠져나간다.
답답함에 짧은 한숨을 쉬는 희열

S#78. 내아 매향 처소

찾상을 앞에 놓고 나란히 마주앉은 두 사람.

매향

아, 너두 얼마 전 그 댁에 불러갔었다니 부암동 사는 김대감을 알겠구나.
그 분이 얼마 전 화적떼 두목한테 눈알을 뽑힌 거 알고 있니?

진이

(놀라 쳐다보며)

네?

매향

못 들었어? 그래서 양반들이 저렇게 동헌에 찾아와 당장 그 놈을 잡아다
목을 베 달라고 성화란다. 안 그래도 요즘 화적떼가 너무 설쳐대서
조정에서도 무어라 장계가 내려온 모양이야.

그리곤 긴장된 표정으로 무언가 생각에 잠기는 진이.

그런 진이를 관찰하듯 시침 떼고 쳐다보는 매향.

S#79. 명월집 방안 / 밤

어느새 날이 저물도록 멍하니 바닥에 놓여있는 놈이의 편지를 바라보고 앉아있는 진이.

할멈

아씨. 홍등을 내다 걸까요?

조용히 진이의 안색을 살피는 할멈을 힘없이 쳐다보는 진이.

진이

이금이... 혼례를 치러줄까 해요. 할멈이 수고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어느 대갓집 양반 못잖게... 성대하고 훌륭하게...

이금이를 보내주고 싶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애잔하게 진이를 바라보는 할멈

S#80. 산 길 / 낮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레 앞장서는 괴똥이 보이고

부지런히 그 뒤를 따라 산길을 올라가는 진이가 보인다.

울창한 나무숲을 헤치고 들어가던 괴똥, 문득 걸음을 멈추고 진이를 돌아본다.

괴똥

여깁니다, 아씨... (망설이며) 헌데 삼춘께서 뭐라고 하실는지...

진이

여기까지 와서 그게 무슨 말야? 어서 앞장서라.

진이, 괴똥과 함께 숲을 나서면 광활한 평지가 눈앞에 펼쳐진다.

S#81. 산채 / 낮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괴똥의 뒤를 따라 조심스레 산채로 들어서는 진이.
일개 부락을 연상시키는 십여 채의 산채들이 보이고 활기차게 오가는 남녀노소 사람들이 보인다.

꼬마

괴똥이 형!

괴똥을 보고는 쏘르르 달려오는 코흘리개 꼬마 하나.
넙석 꼬마를 들어올려 주며 반갑게 얼굴을 부비는 괴똥.
괴똥을 따라 산채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진이. 부지런히 밭을 매고 있는 남녀,
커다란 가마솥을 걸어놓고 밥을 하는 처녀, 그 앞에 줄을 서서 밥을 타다 먹고 있는 산채사람들 보인다.
놀란 얼굴로 그런 산채의 모습을 둘러보는 진이를 썩 웃으며 돌아보는 괴똥.

괴똥

기근이 심하니 다들 먹을 것이 없어 산으루 산으루 찾아들지 됩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삼춘께서 하나 둘 받아주다 보니 그만 이렇게 식구가
늘어났죠.

진이, 멍하니 괴똥의 말을 듣고만 서 있다.

괴똥

만나보심 알겠지만, 삼춘은 이제 화적떼의 두목이 아닙니다.
이 대 식구를 이끄는 큰아버지이자 오라버니, 형님, 그리고 든든한
아들이죠.

진이, 괴똥이 열어 제치는 천막 안을 들여다보면
꼬맹이들 다리에 봉대를 싸맨 선비 앞에 앉아 모래 위에 글씨를 쓰며 글을 배우는 중이다.
진이, 확 돌아서서며 말한다.

진이

가자.

괴똥

예? 삼춘도 안보시구요? 곧 오실 텐데...

진이

송도 관아에서 단단히 버르고 있다는 얘기만 놈이에게 전하라우 그래.

진이, 그리곤 종이삿갓을 깊숙이 내려쓰며 저만큼 앞장선다.

진이(N)

괴똥이의 말이 맞아. 놈이는 변했어... 예전의 놈이가 아니야...
나 때문에 울고 웃던... 그 놈이가 아니다...

황급히 누군가에게 뭐라 속삭이곤 진이를 따라가는 괴동.
멀리서 진이의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서 있는 놈이
멀어져가는 진이의 모습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만보는 놈이.

S#82. 동헌 안채

이방(N)

“사또 이방이옵니다.”

희열

“들어오너라.”

급히 들어와 앉는 이방

이방

“사또 서도 쪽에 암행어사가 떴다 하옵니다.”

희열

“암행어사가? 그런데”

이방

“저... 사또께서 부임하신이후에 지금까지 상목 포흠 500동이 아직
채워지지 않은지라. 만약 암행어사가 떴다면 문제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라서...”

희열

“포흠이란 것이 숨기려한 것도 아니요 잠시 빌려 썼다가 곧 채워
넣으려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니 문제 될 것은 없다.”

이방

“하오나 사또 포흠자체가 문제는 아니옵고 암행어사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선 500동이 워낙 큰지라 시간이 촉박 할 것 같아 그것이
걱정되옵니다. 행여 사또께서 별거 아닌 일인데 그것 때문에 화라도
당하시면....”

못마땅한 희열 하지만 이방을 돌아보며

희열

“그래 무슨 생각이라도 있는 게냐?”

이방

“사또께서 제 뒤만 잘 봐 주신다면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채워
놓겠습니다.”

S#83. 마방집

시끌시끌한 마방집 앞뜰 화투불에 모여 앉아 이야기판을 벌이고 있는 마실 군들
그들 속에 앉아있던 곰보주인이 자리를 털고 먼저 일어나 작별인사를 한다.
마방집과 안채가 통하는 연결 문을 걸어 잠그는 곰보주인.
술병을 챙겨 방안으로 들어가는 곰보주인.
방안에는 조세를 담당한 서리청의 리속이 술상을 앞에 놓고 있다.

cut to>

마방집 헛간 쪽의 낮은 담 옆에 복면을 한 사내들 곰보주인이 방안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다.
한 놈이 담을 넘어 들어가고 나머지는 빠르게 옆문 앞으로 이동한다.
문이 열리고 잭싸게 집안으로 들어가는 사내들
몇 명은 안채로 또 몇 명은 곰보주인이 있는 건너 방으로
나머지는 마방집으로 통하는 문과 후문, 대문 앞에 나누어 문을 지킨다.
안방으로 들어간 사내들은 안주인과 아이들을 단칼에 베어버린다.
곰보주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보물들을 꺼내서 리속에게 자랑을 하고 있다.
그때 방안으로 뛰어든 사내들은 곰보주인을 단칼에 베어버린다.
리속은 구석으로 몸을 피하고 사내들은 보물을 챙겨 나간다.
리속은 기다시피 방을 빠져나와 관아를 향해 달린다. 그 모습을 확인하고는 사라지는 복면 사내들.
마방집 앞뜰에선 아무것도 모른 채 화투불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깔깔거리고 있다.

S#84. 동헌

형방

“그놈들이 누군지 보지 못했느냐?”

리속

“복면들을 하고 있어서 확실하게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그중 한명은 분명
놈이가 확실했습니다.”

희열

“놈이?”

형방

“지난번 김대감댁을 털었다는 그 화적 때 두목입니다.”

희열

“복면을 하고 있었는데 어찌 알아볼 수 있었느냐?”

리속

“놈이는 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눈빛이 어찌나 무서운지 마주치기만
해도 꿈쩍 할 수가 없습니다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방의 동태를 살핀다.

희열의 시선을 피하는 이방

S#85. 시전 거리 / 낮

여기 저기 상점들을 기웃대며 혼수품을 구경하는 장덕과 이금의 뒤로
곧뜰히 생각에 잠긴 채 뒤따르는 진이가 보인다.
진이의 얼굴에 쓸쓸한 미소가 번진다.

이금

아, 아씨?!

진이, 이금의 목소리에 흠칫 정신을 차리고 쳐다보면
심상찮은 얼굴로 천천히 손을 들어 어딘가를 가리키는 이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험악한 얼굴의 수배전단, 다름 아닌 놈이의 얼굴이다.

할멈

(사람들을 붙잡고) 무, 무슨 일입니까? 왜 저 사람을 잡는데요?

행인

못 들었소?

엇그제 마방집에 화적떼가 들어서 그 집 식구들을 모두 쳐 죽이고 보물을
훔쳐갔다 양우?

할멈

보물이라니? 마방집에 뭘 보물이 있어서 화적떼가 든단니까?

행인

나 참, 송도 사람 아닌가봐?

그 집 마구간 아래에서 옛날 고려 적에 감쪽같이 없어졌던 중국보물들이
나온 걸 그래 아직도 못 들었던 말ियो? 이제 팔자 피고 땡땡거리며
살겠다고 부러워들 한 게 엇그젠데 저런 비명횡사를 당할 줄 누가
알았을꼬...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놈이의 얼굴그림을 바라보는 진이.

S#86. 명월집 뒤뜰 / 낮

집안을 살피며 조심스레 들어서던 괴똥, 이금에게 붙잡혀 뒤뜰로 끌려간다.

이금

어디 갔다 와요?

괴똥

...

이금

놈이 오빠한테 갔었죠, 그쵸? ... 다시는 산채에 가지 않는다구 그렇게
다짐을 해 놓구선... 당신 어떻게...?!

원망스러운 듯 괴똥을 쳐다보던 이금, 그 자리에 주저앉아 훌쩍이기 시작한다.

괴똥

(당황하며) 미안, 미안.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 다시는 안 갈 거야.
정말루!

이금

(획 쳐다보며) 솔직히 말 해봐요. 당신... 설마.. 마방집 일에...
끼어들었어요?

괴똥

뭐어? 마방집 일이라니.. 도대체 무슨 소릴 하는 거야?

이금

그게 아님... 산채엔 왜 갔어요?

괴똥

아 어떤 놈이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곤 삼춘한테 옴팡 덤터기를
씩었는데... 그걸 그냥 두구만 보란 말이야? 아무리 산채와 인연을
끊었대두 그렇지, 하다못해 이런 상황인 걸 알려라두 줘야할 거 아냐?

이금

정말이쵸? 내 눈 똑바루 보고 얘기해요.

괴똥(N)

정말이지. 아님 내 목을 베라구.

방안에서 창문 너머로 들리는 두 사람의 얘기를 말없이 듣고 앉아있는 진이.

S#87. 호장의 집 방안 / 밤

아전의 집이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호화롭게 치장한 호장의 집.
이방과 호장,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며 앉아있다.

이방

아무래도 사또께서 내막을 알고 있는 것 같아.

호장

아니 무슨 다른 말씀이 계셨습니까?

이방

말은 무슨 말. 그냥 눈치가 그렇다는 예기지 혹시 형방비장이 이실고지를 한 게 아닐까?

호장

제발 이실고지해서 알구 있었으면 하구 바라는 바워다. 어쨌든 포흠 상목 500동을 꿀꺽 했는데야 미끼를 삼킨 잉어지, 앗 그렇소? 사또께서 우리한테 약점 잡혀서 이제 꿩 잡는 때 노릇을 하게 됐으니 아마도 속이 찌나 상하실 께요. 하하하...

이방

아무래도 놈이란 놈한테 누명을 씌워 놓은 게 영 찻찻하단 말이야.

호장

아이구 놈이 타령 그만하쇼 기생이 화냥년 소리를 듣게 마련이구 화적이 사람 죽였던 소릴 듣는 게 당연한데 그까짓 마방집 일쫓이 무슨 큰 덤탱이라구 그러쇼

순간 밖에서 들려오는 인기척소리에 놀라 방문을 돌아보는 두 사람.

이방

.. 바, 바람 소리웨다.

그러나 두 사람, 여전히 긴장된 표정으로 방문을 쳐다보는데,
방문, 문득 벌컥 열리더니 찬바람이 확 불어 들어오며 촛불이 꺼진다.
두 사람, 화들짝 놀라 엉덩미로 물러서 앉는데
구척장신의 시커먼 그림자가 팔짱을 끼고는 뒷마루에 서서 말없이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놈이

불!

순간 어디선가 햇불이 나타나 곧장 뒷마루위로 올라온다.
이글거리는 불빛 속에 드러나는 염라대왕 같이 험악한 놈이의 얼굴.
이방과 호장, 놈이의 얼굴을 알아보곤 기겁하며 사시나무 떨 듯 떨기 시작한다.

S#88. 호장집 마당 / 밤

이방/호장

아이고오오~

놈이의 부하들에 의해 마당에 내팽개쳐지는 두 사람.
화적패 10여명 여유 있게 웃으며 두 사람을 둘러싸고
그 사이 동네사람들, 하나 둘 담장밖에 모여들어 머리를 기웃댄다.

이방

이 사람 놈이, 아니 놈이 두령. 자네 날 알지?
무슨 소청이 있는지 말씀만 하시게.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문 내
뭐라든 할 테니까.. 그저 분부만 내리라니.

놈이

마방집에서 훔쳐간 물건들을 어떻게 했어?.

이방

마... 마방집에서 훔쳐간 물건이라니? 그, 그게 무슨 소리인가?

놈이

(코웃음을 치며) 그러니 마방집에서 사람들을 죽이구 보물을 빼앗아간 게
나란 말이지?

부하들, 그런 놈이의 말에 웃음을 터뜨린다.
주위를 둘러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방과 호장.
보초를 세워뒀던 이속들 다들 포승줄에 묶인 채 떡이 되어 널브러져있다.

놈이

그 리속 놈을 끌구 와

그러자 화적하나가 사내 한 놈을 내동댕이친다.
이미 얻어터져 물골이 말이 아니다.
고개를 들어 이방, 호장과 눈이 마주치는데 바로 마방집에 같이 있었던 리속이다.

놈이

자 말해봐 보물을 어디다 감췄나?

두 사람 말이 없다.

놈이

말루 해선 안 되겠다, 이놈들을 들보에 매달아라!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방부터 붙잡아 올리는 부하들.

이방

나, 난 모르우. 저 사람이.... 이 집에...

이방, 끌려가며 호장을 가리키자 호장, 얼굴 하얗게 질리며 엉금엉금 기어서 달아난다.
그런 호장의 뒷덜미를 잡아선 번쩍 허공으로 들어올리는 부하.
호장,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 이를 달달 떨며 무어라 중얼댄다.

놈이

이 놈이 도대체 뭐라구 지껄이는 게냐?

부하, 호장의 입에 귀를 대더니,

부하

뒤꼍의 장독대가 어떻게 대추나무가 어떻게 하는 뎡쇼?

놈이

끌고 가봐!

부하들, 호장을 끌고 뒤꼍으로 사라진다.

놈이

(동네사람들을 향해) 한밤중에 곤한 잠을 깨워 미안하우.

글쎄 여기 이 이방놈하고 호장놈이 짜구서 마방집 사람들을 죽이구
보물을 몽땅 훔쳐가구선 그 죄를 홀랑 나한테 뒤집어씌웠구려. 그래 내가
그런 불의의 짓을 하는 놈이 아니라는 걸 세상에 밝히기두 해야겠구 또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른 놈들을 툭툭히 징계두 해야겠기에 본의 아니게
이렇게 소란을 피웠수다.

그때, 부하들 커다란 청동괘짝을 킁킁거리며 들고 온다.

놈이가 청동괘의 뚜껑을 열자 이글거리는 햇불 아래 눈부신 광채를 뿜어내며 모습을 드러내는 보물들. 멀찍이
섰던 동네사람들,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하나둘 다가와 괘짝 안을 들여다본다.

그때 보초를 서던 부하 황급히 달려오며

부하

군사들이 몰려옵니다. 어서 가지지요!

놈이가 눈짓을 하자 서둘러 이방과 호장을 기둥에 묶는 부하들.

놈이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화입을 만한 일이 손톱만큼도 없소이다. 이제
관가에서 들이 닥치문 보구 들은 대루만 말하구려. 저놈들이 훔친 물건은
여기 그대루 두고 가니 관가에서 알아서 처리 하라더란다구 전해주슈!
(싱긋 웃으며) 그럼 다시 봅시다!

그러곤 들어닥치는 관군들을 피해 훌쩍 담장을 뛰어넘어 지붕 위로 사라지는 놈아와 화적패들.

S#89. 송도 부중 / 밤

어둠 속에 지붕을 타고 이집 저집 담장을 타넘으며 군사들을 피해 달아나는 화적패들.

관군들, 그런 화적패들 쫓아 소리를 지르며 이 골목, 저 골목을 헤맨다.

S#90. 명월집 / 낮

이급의 혼례식 잔치 준비로 부산한 명월집 앞마당에 느닷없이 들이닥치는 포졸들.

수교

살살이 뒤지 거라!

그때 소란을 듣고 방에서 나오는 진이.

진이

수교 어른께서 우리 집에까지 다 오시구... 웬일이십니까?

수교

어제 밤 송도 시내가 발각 뒤집힌 걸 못 들었나?

진이

아뇨.

수교

간밤에 놈이가 이끄는 화적패가 호장 어른의 집을 들이치지 않았겠나.
그래 내가 직접 박석고개까지 쫓아가서 그 놈이란 놈을 분명 활을 쏘아
꺼꾸러뜨렸는데 아, 근데 이 놈이 화살을 맞은 채로 감쪽같이 달아났단
말야?! ... 놈이란 놈... 자네의 기둥서방이었다지? 허니 이리루 올밖에.
(포졸들에게) 살살이 뒤지거라! 틀림없이 이 안에 있을게다!

우르르 흩어지며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는 포졸들.

진이 내심 바짝 긴장한 채 그런 포졸들의 모습을 애간장 졸이며 쳐다본다.

cut to

곳간 문을 활짝 열어 제끼는 진이.

놈이의 모습 보이지 않자 집안 곳곳을 뒤지며 놈이를 찾는다.

할멈

이 집 안에 있으믄 포졸들이 찾아냈지 그냥 빈 손으루 갔겠어요?

진이

어디예요? 할멈은 아시죠? 많이 다쳤어요? 죽지는 않았나요?

할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난 도통...

진이

괴퐁이 어딴어요?

할멈

그야 이금이가 알겠습쇼.

진이

이금인요?

할멈

그야 괴똥이가 알테구요.

그리곤 태평한 얼굴로 저만큼 엉덩이를 썰룩이며 걸어가는 할멈.

진이, 그런 할멈의 뒷모습을 어이없다는 듯 쳐다본다.

진이(N)

왜 이리두 가슴이 답답할까?

S#91. 동헌 / 낮

희열에게 컿속말로 무언가를 보고하는 형방비장.

형방의 말을 듣는 희열, 표정 점점 심각하게 변하더니 이윽고 책상을 팡! 하고 내리친다.

희열

이런! 도대체 너는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무얼 하고 있었던 말이나?

형방비장

(머리를 조아리며) 주, 죽여주십시오, 사또!

에초에 감찰사가 온단 말을 듣고 급한 김에 호장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사또께서 미리 내어 쓰신 상목을 채워 넣을 테니 대신
뒷배를 보아 달랬을 때 뭔가 구린 짓을 하려는 걸 눈치는 챘었지만... 설마
그놈들이 이렇게까지 사악한 짓을 꾸미고 있었는 줄 소인이 어찌
알았겠습니까?

희열

이거야 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생기지 않았느냐.

형방비장

그러게 말입니다. 그 화적패란 놈들이 끼어들어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지만 않았어도... 이제 이 일을 어찌 하오리까, 사또?!

희열

이방놈과 호장놈은 어찌해 두었느냐?

형방비장

일단 옥사에 가두어두었습니다만 사또가 뒷배를 보아주실 것을 믿고
그러는지 제 집에 온 것 마냥 여유 작작 이옵니다.

황급히 붓을 들어 편지를 쓰는 희열.

희열

일단 믿을 만한 놈을 골라 그놈들을 단단히 지키고 있으라 일러두고
너는 당장 이걸 들고 서울부터 다녀와라.

그리곤 일필휘지로 무언가를 적어 봉투를 봉한 다음 형방에게 건네주는 희열.

S#92. 밤길 / 밤

마치 빨래터에 가는 듯이 이런 저런 빨랫감과 대야를 싸들고 저만큼 걸어가는 아낙들.
그러다 갈래길이 나오자 할멈, 빨랫감 속에서 자그마한 보따리 하나를 꺼내들고는 아낙들과 헤어져 혼자 산길
로 접어들다. 저만큼 소리 없이 할멈을 뒤따르는 진이.

S#93. 염병골 / 밤

금방이라도 귀신이 튀어나올 듯 폐가들이 늘어선 염병골.
사람은 그림자도 안보이고 멀리서 울부짖는 승냥이 소리, 풀벌레 소리만 들려온다.
저만큼 앞서가던 할멈의 모습, 순식간에 사라지자 겁에 질려 허둥지둥 바쁜 걸음으로 쫓아가는 진이.
진이, 막 골목길로 접어들면

할멈

아씨께서 뒤를 밝으실 줄 알았수다. 물건은 각기 임자가 있다는데 놈이
임자는 아씨인가 봅시다. 자, 들어가시지요.

할멈, 그리곤 다 쓰러져가는 흥가 한 채를 가리킨다.

S#94. 흥가 안 / 밤

진이, 거적을 들추고 들어서면 저만큼 어둠 속에 웅크리고 기대앉아있는 놈이가 보인다.
할멈, 말없이 들어와 겨름대에 불을 달아서 기둥 틈에다 꽂아놓고 밖으로 나간다.
비로소 불빛에 드러나는 놈이의 얼굴.
덥수룩한 수염에 초췌한 표정의 놈이, 불빛을 피해 어둠 속으로 얼굴을 숨긴다.

진이

... 왜 그렇게 숨어요?
내가... 보기 싫은가요?

눔이

....아닙니다, 아씨...

진이

허면 이리로 좀 나와 봐요...

....어디 얼마나 변했는지... 그 얼굴 좀 한번 보자구요.....

그때서야 천천히 얼굴을 불빛 속에 드러내는눔이.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이며 파리해진 낯빛,
허나 눈빛만은 더 할 수 없이 편안하고 고요한눔이의 얼굴이 나타난다.
그런눔이의 얼굴을 보자 울컥 감정이 솟구치는진이.
입을 앙다물고 마치 화난 사람처럼 그런눔이의 얼굴을 뚫어져라 쏘아본다.

눔이

돌아가십시오, 아씨.

저란눔은 애초에... 아씨 곁에 있어선 안되는눔이었습시다.

... 저란눔은... 아씨께 불행만을 가져다드리는 존쟁니다.

허니... 누가 오기 전에... 어서 이곳을 나가세요...

그 말에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와락눔이를 끌어안는진이.

진이

....제발... 그런 말 말아요....

눔이를 끌어안은 채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는진이.
눔이, 예상치 못한진의의 행동에 눈을 커다랗게 뜨고 죽은 듯이 앉아있다.
그런진의의 모습, 어린진의의 모습으로 변하며

ins.

황진사댁 마당.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어린눔이를 끌어안고 울고 있는진이.

하인들, 놀라 어쩔 줄 모르며 그런진을을 떼어내려 안간힘을 쓰고

진이 그럴수록 더욱 더눔이를 끌어안고 몸부림을 친다.

진이

---(흐느끼며) 살려주세요... 아버지님...눔이를 제발 살려줘요...

눔이 잘못 없어요... 제가 졸랐어요... 등불놀이 데리고 가달라고...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황진사

어허! 뭐하느냐? 당장 저 애를...?!

황진사, 놀라 어쩔 줄 모르고진의의 흐느낌을 들으며 놀란 얼굴로 앉아있는눔이.

그런 어린눔이의 모습, 진이에게 안긴 채 앉아있는 어른눔이의 모습으로 변하더니
이윽고 얼굴 표정 편안하게 변하며 한쪽 팔로진을을 으스러져라 껴안는다.

S#95. 동헌 / 밤

형방

사또 형방이옵니다.

희열

어서 들라

황급히 들어와 편지를 전하는 형방
긴장된 얼굴로 편지를 읽고 있는 희열.
이윽고 편지를 접더니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다.

S#96. 흥가 안 / 밤

가져온 약 꾸러미를 푸는 진이, 다리에 난 상처를 살피보는 진이

놈이

아씨 괴똥이를 꾸짖지 마세요. 아씨께 여쭙지 못하게 막은 것은 접니다.

진이

꾸짖어요? 제가? 괴똥이를 꾸짖을 만큼 ... 그럴만한 값어치가 있는
계집인가요?

놈이

아씨...

진이

듣기 싫어요. 아씨라고 부르지도 마세요.

화를 내며 독하게 쏘아대는 진이를 보고 빙그레 웃는 놈이

진이

왜 웃어요?

놈이 땀구 없이 웃기만 한다.

진이

왜 웃냐구요?

놈이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요. 아씨께서는 다 잊으셨겠지만... 저한테
풀각시를 만들어 달라구 떼를 쓰시던 어린 시절에 아씨도 지금처럼
심술스러우셨어요.

진이

뭐예요?

눔이

심술스러울 뿐만 아니라 억지가 썩었어요.

진이

그럼 당신은요?

눔이

제가요?

진이

그래 등불구경 간다고 날 엮구 가서 거리바닥에 버리구 달아난 게
누구예요?

눔이

그건....

진이

그렇게 인정 없고 심술스러운 당신이었지만 좋아리 맞는 게 애처로 와서
울며 뛰쳐나가 매를 막아선 건 또 누구구요?

화는 간 데 없고 다정하게눔이를 보고 있는 진이의 표정을 보며 호뭇한눔이

눔이

정말 그런 일이 있었죠....

약을 바르고 있는 진이를 보고 있는눔이

눔이

아씨

진이

네?

눔이

아, 아닙니다.

진이

왜요? 어서 말씀하세요.

놈이

아니요 그냥 이렇게 아씨를 쳐다보며 어린 때 일들을 생각해보는 게 더
좋습니다. ... 이제 우리가 다시 그 시절로 되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이

당신이 저를 살살 꼬여서 등불구경을 데리구 가서 옛날처럼 다시 한길에
내동댕이치구 달아나버리겠죠.

놈이

다시 새각시 새서방 흉내를 내며 맞절두 하게 될 거구요

진이

꾸며내지 마세요, 전 그랬던 기억이 전혀 없어요.

진을 보고 있던 놈이 한숨을 몰아쉬며

놈이

참, 사람이 지나간 일을 전부 깨끗이 잊어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S#97. 동헌 / 밤

긴장된 얼굴로 회열을 쳐다보는 형방 비장.
회열, 이윽고 형방비장에게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한다.
귓속말로 무언가를 속삭이는 회열.
그 말을 들은 형방 비장, 놀란 눈으로 회열을 쳐다보다

형방비장

소인이... 직접... 소인의 손으루 말씀이오니까?

회열

(한심한 듯 보며) 왜 그런 일을 니가 직접 한단 말이나. 옥안에 있는
죄인들 중에 그런 일을 할만한 놈이 있을게다.

이윽고 고개를 숙이며

형방 비장

아, 알겠습니다, 사또.

조용히 물러나는 형방.
접었던 편지를 다시 펴보는 회열

형(N)

네가 송도 류수로 부임할 때 외직의 요령은 뭐니 뭐니 해도 아전
놈들한테 업히지 않는 것이라고 내 그토록 일렀거늘, 어찌다 그런 간계에
빠져들었느냐는. 다행히 보물을 되찾았다 하나 이대로는 너 역시 아전들을
제대로 감독 못한 책임을 면치 못할게다. 똑똑한 사람은 그런 함정에
빠졌을 때 누가 구해주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빠져나갈 방도를
찾는 법. 일단은 네 약점을 틀어쥐고 있는 두 아전 놈의 입을 봉하는 게
우선이다. 그런 후에 한시 바빠 임금께서 치하하실만한 공을 세워 면책할
방도를 찾으려다!

동현을 나서던 형방비장,
잠시 걸음을 멈추고 믿기지 않는다는 눈길로 창문에 비친 희열의 그림자를 돌아본다.

S#98. 흥가 안 / 새벽

붕대를 감아 치료를 마치는 진이

진이

다시 산채루 돌아갈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놈이

왜요?

진이

이제 시작에 불과한데 당신은 그래 화적으루 인생을 마치실 생각이세요?

놈이

다른 길이 없어요.

진이

아니요 상처가 아문다음 관가에 자수 하세요 용서를 받도록 제가 주선회
드릴게요.

놈이

.....

진이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놈이

아씨는 될 수 없는 일을 권하십니다.

진이

어쨌서 될 수 없는 일인가요

놈이

이제는 쏟아진 물입니다. 설사 제가 자수를 한다구해도 나라에서 용서해 주질 않을 겁니다.

진이

그건 걱정 마세요 제가 류수 사또께 직접 청을 드릴게요.

놈이

류수 사또가 아니라 나라님도 아래로 흐르는 물을 거꾸로 흐르게 만들 수는 없는 일입니다. 목탁이 매 맞는 것은 타고난 팔자란 말을 아십니까?

그때 할멈이 들어선다.

할멈

산채에 줄이 닿았다는군 그래. 오늘 내일 간에 당장 자네를 내내 간다구들 난리네. 난 암만 생각해두 이 삼엄한 파수 속을 뚫고 어떻게 자네를 빼갈지는 알 수 없네만 혹시 모르지. 준비하구 기다리라니 기다려 보게나. 그리구 아씨 빨리 집으루 돌아가셔야 겠수다. 대사가 내일 모런데 집에다 큰일 벌려 놓구 여기와 숨으셔서 소꿉놀이에 정신을 파시면 어찌우? 당장 청첩을 보낼 곳을 찍어줘야 전갈 이라두 띄웁쇼.

진은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며 놈이에게 다짐을 받는다.

진이

부탁해요.

내일 아침... 내가 올 때까지 여기에 있어줘요.

대답해요! 내 말대로 하겠다고. 어서요, 예?

놈이는 대답대신 진이를 보고 빙그레 웃는다.

S#99. 동헌 내아 / 낮

꿈틀하는 희열의 시선.

희열

...그러니까, 네가 그 놈을 자수 시킬 테니 나보러 뒷배를 봐 달라 이 말이나?

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예... 사또....

회열

하지만 그놈은 흉악한 죄인이 아니더냐?

진이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도적질을 하기는 하였으나 인명을 해치다뇨?
듣자하니 마방집 사건도 이방과 호장이 짜고 벌인 소행이라 하던 걸요?

회열

(움찔하며) 그야... 그놈들을 치죄하면 알 수 있겠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그놈은 화적패의 괴수가 아니더냐. 그것만으로도 중벌을 면치는 못할 터.

진이

허니 이렇게 원네가 부탁드립니다 것 아닙니까?

회열

... 그놈이 지금 네 집에 숨어 있느냐?

진이

아닙니다.

회열

그럼...?

진이

그건 묻지 말아주십시오.
사또께서 약속만 해주시면 제가 틀림없이 그이를 자수시키겠습니다.

회열, 그런 진이를 생각에 잠겨 가만히 쳐다본다.

회열

그리해라. 내 약속하마.

진이

(기쁨에 고개를 쳐들며) 정말이십니까?

회열

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명월이 네가 이렇게까지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어찌 거절하겠느냐.

진이의 눈에 얼핏 눈물이 맺힌다.

진이

사또께서 베풀어주신 이 은혜, 천년 평생토록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 진이를 내심 믿을 수 없다는 듯 뺨히 쳐다보는 희열.

S#100. 내아 앞 / 낮

진이, 총총히 내아를 빠져 나가면 창문 앞에 다가와 멈춰서는 형방비장과 수형리.

형방비장

사또!

창문 열리며 희열의 얼굴이 나타난다.

희열

무슨 일이나?

수형리

옥사에 가둬둔 이방과 호장이 조금 전 옥안에서 제 손으로 목을 달아
뒀사외다.

희열

...알았다. 내 내일 아침 일찍 시체를 검시하러 갈 테니 검률형리들을
대령시켜 놓거라.

수형리

예!

형방비장, 희열에게 은밀한 눈짓을 보내곤 수형리를 따라 돌아서려는데

희열

그리고...

형방비장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면 그런 형방비장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는 희열.

진이가 빠져나간 문을 보는 형방

멀어지는 형방비장을 바라보는 희열의 모습

S#101. 거리 / 낮

이급이를 앞세워 부지런히 집으로 돌아가는 진이.

저만큼 멀리 소리 없이 그런 진이의 뒤를 밟는 형방 비장과 포졸들이 보인다.

S#102. 내아 / 저녁

희열, 골똥히 생각에 잠겨 있고 매향 밥상을 들여온다..

희열

너도... 놈이란 놈을 아느냐?

매향

(빙그레 웃으며) 그이를 모르면 송도사람이 아니지요.

희열

... 어떤 놈이나?

매향

어떤 놈이나 굶쇼? 글썄요... 저희 같은 천한 계집들로서는 양반
첩실자리가 아닌 다음에야 한평생 의지하며 살고픈 사내중의 사내입죠.

그 말에 뚫어져라 매향을 노려보는 희열.

매향, 찬 뚜껑들을 열어 희열에게 밥상을 권하며.

매향

웬네도 사또께 한 가지 여쭙 봐도 될까요?

쳐다보는 희열

매향

사또께선 그리 명월이를 이뻐 하시면서 왜 수청을 들라하진
않으시옵니까?

희열

난 이제껏 나를 싫다하는 계집을 억지루 수청 들게 한 적이 없다.

매향, 그 말에 애매하게 웃으며 말한다.

매향

그 말씀을 들으니 화류계에 도통했다하는 어떤 양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희열

뭐냐?

매향

사내가 계집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데는
무릇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하더이다.
권력이나 재물로 계집을 굴복시키는 것이 그중 가장 낮은 하지하의
방법이고 완력으로 계집을 정복하려 하는 것은 중지중의 방법이라
하였지요.

희열

허면 상지상의 방법은?

매향

그건 아름다운 계집이 스스로 사랑에 빠져 사내의 발목을 붙잡고
애원하게 만드는 것이 라죠?

희열

허헛... 맹랑하긴 하다만 그럴듯한 얘기구나.

매향

(쿵쿵 웃으며) 헌데 어쩍니까, 사또?
명월이 마음이 저리 판 사내한테 가 있으니 말입니다.
저 애가 사내 뺨에 저리 몸이 달아 하는 것을 언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말에 얼굴 딱딱하게 굳어지는 희열.

S#103. 명월집 / 밤

집으로 들어오기 무섭게 괴퐁이를 찾는 진이.

진이

염병골에 갈 테니 어서 괴퐁이를 불러와요.

할멈

소용없습니다.

진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할멈

산채에서 사람들이 와선 벌써 놈이를 떠메고 갔는걸요.

진이

갔다고요? ... 갔다고요?!

진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이다 입술을 깨문다.
힘없이 뒷마루에 걸터앉는 진이.
할멈, 넋을 놓고 앉아있는 진이에게 다가와 편지 한 장을 내민다.

할멈

여기요. 아씨께 전해 달라 그러디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곤 천천히 펼쳐보는 진이.
담장 너머에선 형방비장, 포졸들을 데리고 조심스레 담장안의 동정을 살핀다.

눔이(N)

제가 이렇게 또 다시 아씨의 말씀을 거역하고 발길을 돌리는 건 목숨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염병골로 저를 찾아오신 아씨를 뵙는 순간, 저 누이를 위해 아씨가 흘리시는 눈물을 보는 순간, 제가 두려웠던 것은 또 다시 허튼 꿈을 되살리려하는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S#104. 산채 / 낮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산채로 돌아온 누이. 아이들이 매달린다.
절뚝거리는 다리를 하고도 아이들을 안아주는 누이

눔이(N)

아씨께서도 저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주체님은 확신과 같지 않은 희열 속에서 정신을 차린 것은 아씨께서 떠나시고 난 후였습니다. 아씨께서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괴땡이가 가져갈 봉치함을 싸고 있다.
괴땡이를 놀리는 즐거운 사람들.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괴땡이의 행복한 모습
그런 모습을 웃으면서 보고 있는 누이

눔이(N)

~~아씨께서 사또께 말씀드려 제 목숨을 구하겠다 하시지만,~~

저 누이는 양반의 온정 따위 믿지 않습니다. 사또께서 아무리 인정 있고 관대하다 한들, 그건 같은 양반에게 일 뿐 저 같은 상놈에겐 아닙니다.

허나 혹 제가 아씨 곁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다른 사내의 품에 안긴 사랑하는 여인의 침방을 지키는 선량한 기동서방 노릇은 두 번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제가 아씨를 산으로 모셔오는 것인데 아씨를 산속의 고달픈 은둔생활로 끝나버릴 화적괴수의 여인으로 만들 수 없는 일입니다.

S#105. 진이 방 / 밤

놈이의 편지를 읽고 있는 진이

놈이(N)

승냥이와 개가 아무리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도 개는 집에서 살아야하고
승냥이는 산에서 살아야 합니다. 일단 진실을 깨달았으면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라 해도 주저 말고 그 진실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아씨의 당부를 저버리고 산채로 돌아가는 이유입니다.
용서하세요 아씨...

마당에선 괴똥이의 친구들이 가져온 봉치함이 도착했다.
왁자지껄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
편지를 접고 내다보는 진이
할멈과 논단이 들이 봉치함을 들고 들어온다.
산채 사람들이 싸던 봉치함이다.
쓸쓸한 기색을 감추며 즐거워하는 진이
봉치함을 열자. 이곳저곳에서 감탄소리가 난다. 화려한 물건들로 가득 찬 함.
고개를 돌려 마당을 내다보는 진이 괴똥이 친구들이 떡을 먹느라 정신이 없다.
할멈이 진이의 기색에 눈치를 보며 이금이를 쿡 찌른다.
이금이 진이 곁에 앉아 손을 잡는다.
대견한 듯 애뜻한 얼굴로 이금의 얼굴을 쳐다보는 진이.

진이

(이금의 두 손을 어루만지며) 잘 살아야해...

눈물이 그렇그렁한 눈으로 애원하듯 진이를 쳐다보는 이금.

이금

아씨, 저 그냥... 여기서 아씨랑 살게 해주세요, 네?
아씨 없이 저보구 어찌 살라 그러세요?

진이

(이금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그런 소리 말아.
이제 시집가면 얼마 안가 어여쁜 아기도 생길 텐데 기생집에서 아이를
키울 셈야? 그럴 순 없다. 그건 절대루 안돼.

이금

아씨...!

진이, 울먹이는 이금을 꼭 끌어안아준다.

진이

잘 살아...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내 몫까지.. 행복하게...

진이의 품에 안겨 흐느끼는 이금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는 진이.
마당에 커다랗게 서있는 나뭇가지에 걸린 하얀 천 조각이 바람에 어지럽게 휘날린다.

S#106. 동헌 마당 / 낮

비장한 얼굴로 마당에 도열한 관군들을 점검하는 형방비장.
출동 준비를 마치고 동헌마루 위에 서있는 희열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이면

희열

무슨 수를 써서건... 반드시 그놈을 잡아와야한다.
죽이든 살리든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잡아오기만 해.
명심해라. 그놈을 놓치면 자네두 나두 더는 무사치 못할게야.
알아듣겠느냐?

당황한 얼굴로 희열을 쳐다보는 형방비장.
살기까지 번득이는 희열의 얼굴을 보고는 두려운 얼굴로 고개를 떨군다.

형방비장

예! 사또.

동헌 마루에 선 채 출동하는 관군들의 모습을 무섭게 노려보는 희열.

S#107. 산 / 낮

와- 하는 함성 소리와 함께 산기슭에서 곳곳에서 밀고 당기는 결투를 벌이는
화적떼와 관군들의 모습이 보인다.
앞장서 관군들을 막아내며 부하들을 독려하는 놈이.

놈이

식구들의 목숨이 너희들 손에 달려있다.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마라!

같은 시간, 미처 살림살이를 챙길 틈도 없이 황급히 산채를 벗어나
줄줄이 어딘가로 사라지는 산채의 노약자들.

S#108. 진이집 마당

괴똥이가 집에 들어서는 풍경으로부터 화려한 결혼식이 시작 된다.
신랑과 신부가 마주 절을 하고 술잔을 올리고
이리저리 덕담들이 오고가고
왁자지껄 한번의 소동이 지나간다.
신랑신부 옷을 갈아입고 할멈에게 절을 한다.

할멈

어디 가서 살든 우리아씨의 은공을 잊지 말아라

다음엔 진이 차례
절을 한 이금이 울음보가 터져 진이 품에 엮어진다.
마당에선 술판이 벌어지고
장구와 북 뿡파리가 장단을 맞추고 피리소리가 간드러지게 퍼진다.
청교방의 논단어들 봄바람에 버들 아지 날리듯 춤판이 이어진다.
“얼씨구 좋다.” 연신 터져 나오는 추임새들.

S#109. 산채 / 해질녘

산채, 불바다가 되어 타고 있고
산채주변을 살살이 수색하는 포졸들 보인다.
저만큼 멀리 울창한 숲 속에서 몸을 숨기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놈이와 부하들.
뒤에서 부하 한명 소리죽여 다가온다.

놈이

다들 무사하냐?

부하

예.

그리곤 놈이 옆에 몸을 숨기고 불타는 산채를 안타까운 눈길로 바라보는 부하.

놈이

아까워할 것 없다. 어차피 떠날 곳이다, 좀더 일찍 떠나간다 생각하면
그뿐이야.

그리곤 미련 없이 돌아서는 놈이.

놈이

앞으루 며칠이다. 며칠만 잘 넘기면 뱃길이 열릴 거야.
그럼 이제 다시는 이런 꼴 안 보구 우리끼리 평화롭게 살 수 있어.

놈이, 부하들을 돌아보면 부하들, 기대에 찬 눈으로 놈이를 바라본다.

놈이

가자.

부상당한 다리를 절며 발걸음을 옮기는 놈이를 따라 숲 속으로 사라지는 부하들.

S#110. 명월집 / 낮

할멈, 방안으로 들어오면 화로에 무언가를 태우고 있는 진이.

할멈

뭘니까요?

진이

이금이... 노비문섭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네요.

말없이 옆에 앉아 한숨의 재로 변하는 노비문서를 바라보는 할멈.

그때 밖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비명소리, 왁자지껄 웃음소리.

할멈, 어영 하며 창문을 열면 남자들, 괴똥을 거꾸로 매달고 발바닥을 때리느라 소란을 떨고 있다.

괴똥

아구구구구구!

엄살을 떨며 비명을 질러대는 괴똥을 보고는 어이없다는 듯 빙그레 웃는 할멈과 진이.

S#111. 명월집 밖 / 밤

집안에선 여전히 왁자지껄 요란한 잔치소리 들려오는 가운데

발을 절뚝이며 대문 밖으로 나와서는 담벼락에 대고 소변을 누는 괴똥.

그때 웬 사내들 그런 괴똥 옆에 다가와 은밀하게 말한다.

사내

자네가 괴똥이지? 신랑 노릇 하느라구 고생일세 그러.

괴똥

누구시우?

사내

나 산에서 온 사람이네.

괴똥

산? 산이라니 그게 뭘 말ियो?

사내

자네가 알만한 산채 사람이 지금 옆집 행랑방에서 기다리네.

급한 일인데 여긴 이목이 번잡해서 들어오기 싫다는군. 잠깐만 그리 가세.

괴똥

나 참, 산은 뭐구 산채는 또 뭐란 말유? 당채 무슨 말인지 알다가두
모르겠군.

그리곤 사내들을 제치며 돌아서는 괴똥.

사내

어허, 이 사람. 아주 긴한 일이라두 그러네.
오죽하면 오늘 같은 날 여기까지 자넬 찾아왔겠는가.

그 말에 몇 걸음 걷다말고 망설이는 듯이 걸음을 멈추는 괴똥.

괴똥

뭘 일인지 모르지만, 암튼 나를 찾는다니, 일단 한번 가봅시다.

그리곤 사내들과 함께 어딘가로 사라지는 괴똥.

S#112. 명월집 진이의 방 / 밤

조용한 방안에 혼자 앉아 작은 보통이에 간소한 옷 몇 벌과 책 몇 권을 싸는 진이.
막, 보따리를 묶으려는데 밖에서 진이를 부르는 다급한 목소리 들려온다.

이금(N)

아씨, 아씨!

벌컥 방문을 열며 밖으로 나오는 진이.

진이

무슨 일야?

이금, 진이를 보고는 눈물부터 흘리고 할멈과 하인들,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옆에 서 있다.

하인

괴, 괴똥이가 사라졌습니다, 아씨.

진이

사라지다니, 괴똥이가 왜?

할멈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까부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대요.

두려움이 엄습하는 눈길로 그런 할멈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진이.

S#113. 언덕 위 / 낮

어두운 동굴 속, 낮이며 호미, 각종 씨앗 등을 꼼꼼히 챙기고 있는 산채 사람들.

눔이

하나두 빠짐없이 잘 챙기거라.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을 게야.

눔이, 산채사람들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을 훑어보며 동굴 밖으로 나온다.
언덕 위, 장대 위에 매단 깃발이 바람에 어지러이 펄럭이는 모습을 바라보는눔이.
그런눔이의 발 아래로 시원하게 펼쳐진 강물이 보인다.

S#114. 관아 안채 입구앞 / 낮

진이, 관아안채로 가는 문 앞에서 장교를 설득하고 있다.
문은 굳게 닫혀있고 장교는 난처한 듯 진이와 할멈을 설득하고 있다.

할멈

사또를 뵈게 해주세요.

수교

(난처한 듯)사또께선 안 계시다니까! 제발 돌아가시게

할멈

수교어른 정말 이러실 건가 그동안 우리가 수교어른한테...

화들짝 놀라는 수교 할멈 입을 틀어막으며

수교

정말 사람 잡을 셈인가.(주변을 둘러보며)
(답답한 듯) 난들 어찌우 사또께서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직접 명을
내리신걸.... 여보게 명월이 한번 살려주시게. 내 상황을 봐서 조용히
전갈을 올릴 테니 돌아가 계시게.

진이 주머니에든 엽전 꾸러미를 수교 손에 건네준다.

진이

부탁드릴게요. 수교어른

미안한 듯 주변을 살피며 주머니를 받는 수교.
머뭇거리다가 진이에게 껄속말로

수교

(조용히) 자네가 지난번 안채에 왔을 때 사또가 자네를 미행시켰네. 분명 자네 근처에 놈이가 나타날 거라고... 각별히 조심하시게... 지금 사또가 놈이를 잡겠다고 혈안이 되어있다네. 그 때문에 괴똥이를 잡아들이신 거라네....

말을 듣고 있던 진이 표정이 점점 굳어진다.

S#115. 몽따쥬

텅 빈 내아에 혼자앉아 초조하게 무언가를 기다리며 골똥히 생각에 잠겨있는 희열.
관아 안 깊숙이 틀어박힌 옥사에선 고문을 당하는 괴똥의 신음소리 고통스럽게 울려나온다.

형방비장

네 놈이 놈이와 내통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어서 대라! 놈이는 어디에 숨었느냐?

허공에 매달려 피로 범벅된 채 간신히 고개를 흔드는 괴똥.
수형리, 그런 괴똥의 몸에 시뻘건 인두를 들이대면 괴똥, 찢어질 듯 고통스런 비명을 지른다.
희열 참을 수 없는 듯 고개를 돌린다.

S#116. 명월방안

골똥한 생각에 빠져있는 진이

진이(N)

마지막 안채에 들었을 때라면 그이를 사해주겠다는 약조 한 그날이야.
그놈은 애초에 나와의 약조를 지킬 생각이 없었던 거야.
그이 말이 옳았어.

한숨을 쉬는 진이 어떻게 해야할 지 난감하다.

진이(N)

이럴 때 그이가 옆에 있었으면.....

할멈이 들어온다.

할멈

이금이가 옥에 다녀 왔수. 음식을 받아줬다니 아직 괴똥이가 살아 있수다.

진이

(써놓은 편지를 내밀며) 이걸 우의정 윤은보 어른과 이조판서 소세양 어른께 보내세요.

할멈

(편지를 받으며) 아씨... 놈이에게 전갑시다. 괴똥이도 놈이 때문에 잡힌
건데 놈이가 사달을 내야 해결 될꺼유.

진이

그런 말씀 마세요. 난 두 사람 모두 잃어버리기 싫습니다.
그인 절대 이 사실을 몰라야 합니다.
한양에서 좋은 소식이 올 겁니다. 어서 서두르세요.

두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할멈. 하지만 걱정스럽다.
할멈이 사람을 시켜 편지를 전하는 모습을 창문너머로 보는 진이
멀어지는 하인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는 진이.
그러다 문득 거세지는 바람을 느끼고는 고개를 들어 나뭇가지를 쳐다본다.

놈이(N)

동남풍이 불기 시작하면...저는 영영 이 땅을 떠납니다.
이놈을 믿고 의지하는 수십 명의 식구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주린 배를
움켜쥐고 산으루 산으루 찾아든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걱정 없이, 배곯지 않고, 우리끼리 오순도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그들을 데려가주겠다고 말입니다. ...지도에도 없는 이름 없는 섬 하나가
우리의 소망을 이뤄줄 낙원의 땅입니다.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하얀 천 조각, 이리저리 어지럽게 펄럭이다 점점 한쪽 방향으로 날리기 시작한다.

S#117. 나루터 / 낮

그런 놈이의 목소리 들리는 가운데
나루터에서 배에 오르려던 명월집 하인,
포졸의 검문을 받고는 어디론가 거칠게 끌려간다.

S#118. 명월집 마당

꼼짝 않고 서서 바람에 날리는 천 조각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진이.

할멈

벌써 서울로 사람을 몇이나 보냈는데 여태 소식도 없는 것 보시우.
분명 가는 도중 무슨 사단이 난 것이 틀림없어요.
그나마 이제 도움을 청할 곳이라곤 놈이 밖에 없수 아씨 그놈은 무슨
방도를 낼 수 있을꺼유....

진이

그건 안됩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진이(N)

그이를 잃을 순 없어. 어떻게 해야 두 사람을 다 살릴 수 있을까?

그때,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헐쭉한 얼굴로 대문을 들어서서 이금.

이금

아씨... !

진이

(덜컥 겁이 나며) 왜 그래? 괴동이는 보았니?

이금

(폴썩 주저앉으며) 아씨이! 어떡해요? 그이가... 그이가...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다구....

이금, 그리고는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한다.
그런 이금을 끌어안으며 달래주는 진이.

진이

울지 마라. 괴동이는 죽지 않아. 절대루 죽지 않아.
... 내 어떻게든 괴동이를 살려오마.... 내가 이렇게 약속하지 않니.

그리곤 무언가를 결심한 듯 결연한 표정의 진이.

S#119. 내아 / 밤

희열

이런! 네 입으로 사흘이면 충분하다 하지 않았느냐.

형방 비장

송구스럽습니다, 사또. 그놈이 어쩌나 악랄하게 입을 다물고 버티는지...

희열, 노기등등해서 서안을 집어 던진다.

저만큼 날아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부서지는 서안

희열

이런 답답할 때가 있나!

빨리 놈이 그놈을 잡아내지 못하면 이젠 우리가 죽을 차례야!!

형방비장

주, 죽여주십시오, 사또!

그때 희열의 그림자가 비치는 방문 앞 기둥에 날아와 박히는 화살 하나.

희열, 그 소리에 문을 열어보면 바로 코앞에서 부르르 떨고 있는 화살에 편지가 묶여있다.

화살을 뽑아들곤 거칠게 편지를 펼치는 희열.

놈이(N)

긴 말 줄이노라.

이놈, 너희도 사람이냐? 죄 없는 생사람을 잡아다가 화적패로 몰아서 저 지경을 만들다니. 너희가 한 짓을 생각하면 당장 부중에 쳐들어가 일일이 색출하여 육당을 쳐 죽일 것이로되 내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내가 자수하여 애매한 주검을 구하기로 결심하였노라. 허니 괴똥이를 내일 낮 오시까지 집으로 돌려 보내거라. 그가 집에 들어서면 그 시각에 내 스스로 아문에 들어가 자수하겠노라.

편지 끝에 놈이의 놈 자(者)자가 관인처럼 써 있다.
눈썹, 꿈틀하며 와락 편지를 구기는 희열.

S#120. 몽따쥬 / 밤

머리를 만지고, 옷을 차려입고, 외출준비를 하는 진이
마치 중대한 일을 치르러 가는 사람처럼 경건하다.

진이(N)

진이를 버린 내가 명월이를 버리지 못한단 말인가? 그 모두가 그냥 나일뿐인데 무엇에 매달리고 있나? 나보다 소중한 그이가, 괴똥이가, 이금이가, 모두 사는 길인데...

관아를 향해 걸어가는 진이.

진이(N)

썩어 냄새나는 고깃덩이 저 짐승의 먹이로 던져버리자.
하찮은 복수와 욕심 모두 버리고 소중한 사랑에게 가자.
바람을 따라 그이에게로 가자.

어느덧 관아 앞에 당도한 진이.
수교 진이를 보자. 서둘러 사령에게 문을 열라 한다.
문안으로 들어가는 진이

S#121. 내아 / 밤

희열에게 절을 하는 진이

희열

고얀 년 같으니라구.

그동안 내가 고뿔루 죽네 사네 하는 대두 머리 한번 디밀지 않더니
오늘은 어인 바람이 불어 이 시각에 나를 찾았을꼬?

넉살 좋게 미소 띤 희열의 시선과 얼음처럼 차가운 진이의 시선이 허공에서 팽팽히 부딪친다.

진이

원네, 사또께 간절한 소청이 하나 있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희열

소청이라... 그래 무엇이나?

진이

괴똥이를 살려주세요.

사또께서 그리만 해주시면 원네, 사또의 어떤 령이든 받겠습니다.

희열

괴똥이를 살려 달라 이 말이지?... 나 역시 그놈을 죽일 생각 따윈 없다.
문제는 놈이 그 놈이야. 놈이가 어딴는지 괴똥이가 입만 열면 내 언제든
그놈을 놓아주마.

진이

괴똥이는 화적패가 아닙니다.

화적패가 아닌데 어찌 그이가 있는 곳을 알겠습니까?

희열

(날카롭게 쏘아보며) 그이라....

오라, 지금 너는 행여 괴똥이가 입을 열어 네 정인남이 잡힐까봐 그게
무서운 게로구나. 그렇지?

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사또.

저나 괴똥이나 화적패완 무관한 몸, 그의 거처를 어찌 알겠사옵니까?
억울합니다. 불쌍합니다. 제발 괴똥이를 살려주세요.

먹이 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그런 진이를 구경하듯 바라보는 희열.
문득 책상 위에 서찰 하나를 올려놓고 진이를 쳐다본다.

희열

이게 무엇인지 아느냐?

서울 이판대감께서 오늘 나에게 이 걸 보내셨다.

그 말에 긴장된 얼굴로 쳐다보는 진이.

희열

너를 수양딸로 삼겠으니 기적에서 네 이름을 지워 달라 하시는구나.

진이

예?

희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니?
이판대감께서 네 재주를 아끼시어 다시 양반의 신분을 주겠다고 하신단
말씀이다.

그 말에 뚫어져라 희열을 쳐다보는 진이.

희열

그래 내 이 일로 안 그래도 내일 아침 일찍 너를 불러들일 생각이었는데
너는 그런 나를 찾아와서 화적의 괴수를 비호하려 드는구나.
내 오늘 말은 못들은 것으로 할 테니 어서 그만 물러가라!
그럼 너는 내일 아침이면 이판대감의 수양딸이 되는 게다.

하지만 진이, 미동도 않고 그 자리에 버티고 앉아있다.

희열

어서 물러가란 대두!

진이

사또... 제발 부탁드립니다... 괴뚱이를 살려주십시오...

그 말에 부서져라 술상을 내리치는 희열.

희열

못된 것! 내 이렇게까지 타이르는 대두 끝까지 화적패를 두둔하는 이유가
무엇이나? 설마, 지금도 그 놈이란 놈과 내통하고 있는 게냐?
그놈의 목숨이 양반의 신분보다 더 소중하단 말이렷다?!

진이

원래는 스스로 기생이 되기를 자청한 몸입니다.
그런 저에게 이제 와서 양반의 신분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희열

놈이 그놈의 목숨을 살리고자 안달이 나서 이러는 게 아니냐!

진이

아,...아닙니다. 사또...

희열

그래?.... 그럼 어디 한번 증명해보아라.

진이, 그 말에 희열을 쳐다보면

희열

내가 놈이 그놈과의 정분 뎀에 이르는 게 아니란 걸 어디 한번
증명해보아라 이 말이다. 그럼 내 괴퐁이 그놈을 놓아주마.

느긋하게 사방침에 팔을 기댄 채 반쯤 누워서 진이를 쳐다보는 희열.
두 사람, 팽팽한 눈길로 서로를 노려본다.
마침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는 진이, 마침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선다.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옷고름을 풀기 시작하는 진이.
그런 진이를 본 희열의 시선, 꿈틀하더니 이내 차가운 눈길로 변한다.

희열

말했다만, 난 여적 마음에 없어하는 계집을 억지로 취한 적이 없다.

진이

알고 있습니다.

...천네 스스로 사또를 피시고 싶어... 그래서 하는 일이옵습니다.

스르르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지는 진이의 치마.
그런 진이를 질투와 애정이 뒤섞인 시선으로 뚫어져라 노려보는 희열.
이윽고 손을 뻗자 애처롭게 일렁이던 촛불, 획 꺼지며 방안 어둠에 휩싸인다.

S#122. 몽따쥬 / 밤

어둠 속에 사납게 진이의 몸을 헤치며 파고드는 희열.
진이, 위선의 가면을 벗은 희열의 맨얼굴을 믿기지 않는 듯 쳐다보며 부르르 몸을 떤다.
진이의 맨몸을 감탄하듯 쓰다듬던 희열, 그러다 차가운 경멸을 담고 있는 진이의 눈빛을 보고는 얼굴 차갑게
굳어지며 더욱 거칠게 진이를 파고든다.
고통스럽게 고개를 돌리며 이를 악무는 진이.
멀리서 아련하게 들려오는 첫닭의 울음소리.
힘없이 희열에게 온몸을 내맡긴 진이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 뺨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린다.

S#123. 강가 / 아침

배에 올라탄 산채의 남녀노소 사람들, 우두커니 선채로 저만큼 강가를 쳐다본다.
이윽고 천천히 손을 들어 쓸쓸히 흔드는 꼬마.
강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말없이 쳐다보다 이윽고 굳은 얼굴로 돌아서는 놈이의 모습.

S#124. 내아 /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는 진이

희열

좀 더 누워 있거라

일어나는 진이의 손목을 잡는 희열

희열

좀더 누워 있으라니까.

진이

가겠어요

희열

왜?

분노의 눈빛으로 희열을 쏘아보는 진이

진이

사또께 다시 몸을 맡기느니 차라리 지나가는 거지한테 몸을 주겠어요.

희열

(능글거리는 웃음을 흘리며) 그래? 그럼 니 소원대로 하려무나.
소견머리 없는 계집들이 금방 마시고 난 우물에다 침을 뱉는 게야. 금방
다시 목이 마르게 된다는 걸 생각지 않거든. 너두 지금은 침을 뱉는다는
조만간에 다시 이 우물을 찾게 될 것이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뛰쳐나가는 진이
희열 웃음을 참지 못하고 통쾌하게 웃는다.
축대를 뛰어 내려오는 진이
참고 있던 눈물이 쏟아진다.
장옷을 뒤집어쓰며 흐느끼는 진이.

S#125. 명월집 / 낮

모멸감과 수치스러움에 부들부들 떨리는 얼굴로 간신히 집안으로 들어서는 진이.
휘청 이는 진이를 보고는 할멈과 매질꾼들 황급히 달려온다.

할멈

(진이를 부축하며) 괴뚱이가 왔습니다. 어떻게나 매질을 당했는지
반송장이 되서 왔어요.

진이

(가까스로 뒷마루에 앉으며) 알고.. 있습니다...

할멈

그럼 좀 전에 놈이가 다녀간 것도 아십니까?

진이

(흠칫하며 돌아보며) 그이가요?

할멈

괴똥이가 돌아온 걸 한번 들여다만 보곤 온다간다 말도 없이 바람처럼 사라졌습지요.

그 말에 얼굴 하얘지며 부들부들 온몸을 떠는 진이.

<플래시>

희열

조만간에 다시 이 우물을 찾게 될 것이다.

장옷을 집어던지고 뛰쳐나가는 진이

S#126. 길 / 낮

헉헉대는 가쁜 숨소리 들려오며

정신없이 관아를 향해 달려가는 진이의 모습이 보인다.

그 뒤로 할멈이며 매질꾼들, 영문을 모르는 표정으로 진이를 부르며 쫓아온다.

진이(N)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 제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진이의 눈에 저만큼 관아 문 앞에 서있는 낮익은 놈이의 뒷모습이 보인다.

진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 모습을 바라보고 섰는데

그런 놈이의 모습 이윽고 문안으로 완전히 사라지며 일제히 닫히는 관문들.

진이

(절규하듯) 아... 안돼!

진이, 그리곤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쓰러지고

허둥대며 쫓아오는 할멈의 모습 희미하게 보이는 가운데 화면 어두워진다.

S#127. 몽따쥬 / 밤

어둠 속에 들리는 진이의 목소리.

진이(N)

이제 다 끝났어...
모두 다... 끝난 거야...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아... 괴로워도 하지 말고....

꿈속의 장면인양 눈앞에 펼쳐지는 점괘. 진이를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의 해월스님

해월(N)

다만 한 가지... 유감스런 것은 가을의 달빛이나 창해 속의 진주나 다
광채가 눈이 부신 까닭에 아씨와 인연을 가지는 사내들은 모두 불운할
것입니다.

어둠 속에 금방이라도 꺼질 듯 바람에 일렁이며 너울대는 촛불.
멀리서 안타깝게 진이를 부르는 이금과 할멈, 괴똥의 목소리 들려오고
굳게 닫힌 진이의 눈에서 주르륵 뺨을 타고 흐르는 한줄기 눈물.
촛불, 눈물에 비친 듯 여러 개의 불빛으로 쪼개지면
각각의 불빛들 아름다운 색색가지 연등이 되어서 어둠 속에 둥둥 떠다닌다.

장옷으로 머리를 가린 채 نوم이의 등에 업혀있는 어린 진이,
살며시 장옷을 들추며 두 눈을 내밀면
마치 연등의 바다 속을 헤엄치는 듯이 끝없이 이어지는 연등들의 행렬.
어린 진이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아! 하는 탄성에
진이를 업고 가던 어린놈이, 힐끗 진이를 돌아보며 빙그레 웃는다.
그런 نوم이의 목을 더욱 힘주어 끌어안는 어린 진이.

S#128. 명월집 / 낮

진이, 눈을 떠보면
걱정스러운 듯 그런 진이를 쳐다보고 둘러앉아있는 이금과 할멈, 괴똥이.

이금

아씨...!

반가움에 커지던 이금의 눈, 아내 눈물이 그렇그렇 맺히며 고개를 숙인다.
괴똥의 부축을 받으며 가까스로 일어나 앉는 진이.
초점 없는 눈으로 자신의 방을 바라보는 진이.
자신이 싸다 만 보통이가 저만큼 한구석에 우두커니 놓여있다.

진이

며칠 제냐, 오늘이?

이금

나흘째예요.... 아씨.

진이

...그이는?

이금

(입술을 깨물고 흐느끼며) 내일 모래... 오정문밖에서... 효수를 당한대요,
아씨....

진이

(할멈에게)오늘 저녁 옥바라진 제가 가겠어요!!

할멈

아씨!... 놈이가 내게 신신당부를 함데다. 아씨를 절대 옥에 오시지 못하게
하라구

S#129. 옥사 / 밤

진이, 이금과 함께 옥사로 들어서면
큰칼을 목에 차고 두 발이 착고에 묶인 놈이, 간신히 고개를 들어 진이를 바라본다.
그런 놈이 앞에 천천히 다가와 앉는 진이.

놈이

헐 수 없는 놈이웁죠?
마지막까지 아씨께 이런 꼴을 보드리니 말입니다.

진이

나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게.. 다... 나 때문이에요.
그런데두... 그런데두 당신은 언제나 당신 탓이라구...

진이, 슬픔에 겨운 얼굴로 놈이를 다그치다 참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을 깨문다.
그런 진이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는 놈이.

놈이

불행이라뇨?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넵니다.

진이, 울컥하는 듯이 그런 놈이를 쳐다보면

놈이

보십시오. 지금 저를 보는 아씨의 그 눈빛이 저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구요. 이... 미련하고 바보 같은 놈을요.
.... 그러니... 저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운 좋고 행복한 놈입니다.

그런 놈이를 글썽이는 눈으로 쳐다보다
이윽고 고개를 돌리는 진이.
숫구치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이금이가 내미는 보따리를 풀어 술 한 병과 잔 두개를 꺼낸다.
술잔에 술을 따라서는 한잔을 놈이의 손에 건네는 진이.

진이

받으세요... 제가 당신께 올리는 첫 잔이자... 마지막 잔입니다. 우리의
인연이 이렇게 짧은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즐거운 사랑의
함환주요... 슬픈 고별의 이별주를...
당신께 바치고 싶습니다.

천천히 술잔을 받아든 놈이,
차마 마시기가 아깝다는 듯이 말없이 술잔을 들여다본다.
진이의 입에선 신음 소리 같은 노래가 흘러나온다.

하늘 중천 달 밝은 밤에 축혼이 외로이 울어
슬픔은 은하에 잠기고 괴로움은 수풀에 서렸네
축혼아 내사랑 네 알리로다 그 사랑 오자 곧 떠나가니
보아라 무심한 저 바람도 송악산 숲 속에 부니며 울어예네

진이의 소리는 흐느낌으로 변한다.

아 길이어 님이 가실 길이어 어쩔 수 없는 고별이라 버들아지를 꺾었지만
어즈버 질선했던 찬 이슬에 그대 옷 젖을까 염려로세...

진이는 목이 메어 채 노래를 끝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진다.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는 진이.
할멈과 이금이도 진이를 부축하며 울음을 터뜨린다.
행복한 표정으로 그들을 보고 있는 놈이
슬픔의 눈물인지 감격의 눈물인지 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놈이

아씨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에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더할 수 없이 평화롭고 환한 얼굴로 천천히 술잔을 비우는 놈이.
쓰러져있는 진이 손에 잔을 쥐어주며

놈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아씨 내일 효수장에는 절대루 나오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S#130. 옥사 밖/ 밤

옥사를 나오는 진이.
그런 진이의 뒤에서 마치 단두대가 떨어지듯 철컹 소리를 내며 닫히는 옥문.
참을 수 없다는 듯 간절한 얼굴로 닫힌 문을 돌아보는 진이.
어두워지는 화면

S#131. 황진사택 후원 / 낮

화면 밝아지면
막 잠에서 깨어나 앉은 어린 진이(7) 활짝 열린 창밖을 멍하니 쳐다본다.
툃마루 위 나뭇잎에 쌓인 채 외롭게 놓여있는 한 응축의 빨간 앵두.
약사발을 들고 들어오다 열린 창문을 보고는 황급히 다가서는 유모.

유모

애기씨! 이러시면 안 돼요... 바람이 이리 찬데...

진이

눔이네?

유모, 움찔하며 쳐다보다 말없이 약사발을 내려놓곤 창가로 다가간다.
닫히는 창문 너머 들리는 진이의 목소리.

진이(N)

눔이네? 누이 어딴어? 누이를 불러와! 누이이-?!

언제까지라도 그 자리에 있을 듯이 외롭게 툃마루를 지키고 앉아있는 빨간 앵두.
천천히 어두워지는 화면

S#132. 몽따쥬 / 낮

화면 서서히 밝아지면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갠 하늘.
카메라, 점차 아래로 내려오면
까마귀 몇 마리 불길하게 하늘을 떠돌고
높다란 장대 위, 덩그러니 걸려있는 누이의 목.

S#133. 나루터 / 낮

조용히 흘러가는 강물을 말없이 바라보고 앉아있는 진이.
옆에는 작은 보통이가 놓여있다.
벌써 배가 불러 온 이금이, 진이의 손을 꼭 잡고 있다.
해월 스님이 다가온다.
함장을 하고 인사를 하는 진이
작은 함을 내미는 스님

해월

놈이의 유골입니다. 아씨가 거두어주심이 옳을 듯해서...

진이 말없이 받아든다.
괴퐁이 저만큼 바쁘게 걸어온다.

괴퐁

아씨. 아무래도 다음 배를 타셔야 겠는데요?

진이

왜?

괴퐁

류수 사포라는 작자가 의정부 우찬성으루 승진해서 오늘 서울로 내려
간다니요? 행차가 건넌 다음에야 배를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곤 저만큼 뒤쪽을 바라보는 괴퐁.
진이 쳐다보면 위세 등등한 회열의 행차가 막 나루터로 들어오고 있다.
사인교에 올라탄 채 근엄한 표정으로 다가오는 회열,
그러다 길가에 선 진이와 문득 눈길이 부딪친다.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뚫어져라 진이를 바라보는 회열.
회열, 무슨 말인가를 건네려다가는 차갑게 외면한 진이의 시선을 보고는
이내 얼굴 굳어지며 역시 시선을 돌린다.
회열을 태운 배 강물 위로 저만큼 멀어지고
분노에 찬 눈길로 행렬을 바라보고 있는 괴퐁이
그런 괴퐁이를 보고 있는 진이

진이

마음 쓰지 말아라. 그도 나와 인연이 있었으니 불운을 면하긴 어려울까다.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던 진이의 얼굴에 조용한 미소가 번지더니
힘 있게 일어서며 종이삿갓을 눌러써 그 얼굴을 가린다.

S#134. 금강산

금강산을 오르는 진이의 모습이 겹쳐진다.
길게 뻗은 숲길,
장대한 폭포,
힘겹게 오르는 바위 언덕...
마침내 금강산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
흐드러진 소나무 사이로 진이가 올라온다.
땀을 흘리며 수려한 경치를 잠시 내려다보던 진이
조용히 함을 열어 유골 한줌을 쥐고 허공을 향해 손바닥을 편다.
바람에 날려 순식간에 사라지는 유골.
한줌, 또 한줌, 바람을 타고 흩어지는 놈이의 유골

진이(N)

바람으로 오세요.... 비가 되어 내리세요....
당신 따라 바람으로 지내렵니다.
당신 품에서 잠들고 깨어나렵니다.

허공에 흩어지는 가루를 바라보는 진이
마치 가루가 된 듯 허공으로 날아오르며 진이를 내려다보면

진이(N)

.....사랑합니다.....

- 끝 -